

8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57.76	↑ 코스닥	859.27
	(-4.47)		(+11.78)
↑ 금리 (연율)	3.119	↑ 환율 (원/달러)	1383.30
	(+0.004)		(+3.00)

수출 증가에도
내수 회복 더더
경기개선에 다소 미약
02



‘온플법’ 2라운드... 플랫폼 업계 “과잉규제·역차별”

(온라인플랫폼법)

野, 22대 국회서 온플법 재추진
분쟁위·단체교섭권 설치 등
더 강력한 규제들로 발의돼

IT업계 “공정거래법으로 충분
과도한 제약에 경쟁력 약화”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연이어 발의되며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새로 발의된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대선과 총선에 밀려 흐지부지됐던 과거를 뒤로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로 돌아왔다. 업계에서는 단체교섭권 등 일부 세부 규정을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22대 국회 시작 후 한 달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 총 5건의 온플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 교부 및 계약 해지, 서비스 제한 통지 의무를 공통 세부 규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하며, 이용 사업자들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도 법안 내용의 핵심이다.

다만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각

법안별로 차이가 있어 매출 기준 100억 원부터 5000억 원까지 다양하다.

지난 5일 참여연대 등 110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상품 끼워팔기 등 독과점 남용 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제재 수단, 기준을 합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이며, 정부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와 단체교섭권 설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5개 법안이, 단체교섭권 제도 도입은 4개 법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담고 있어 입법 시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단체교섭권 행사 시 교섭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제약,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들의 공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IT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까지 법안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정거래



상반기 국적 항공사 승객 ‘역대 최다’

올해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국내·국제선 여객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단거리 노선 운항 위주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인천국제공항에 이륙하는 대한항공 뒤로 LCC 여객기가 주기되어 있다. /뉴스IS

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안을 추가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측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만큼 법안 마련이 오히려 늦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쿠이츠 등 배달 앱 3사를 예로 들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사후보장에 생전보장까지 결합 고령화시대 달라지는 종신보험

생보업계, 기존 종신보험 틀 깨
암·간병 100% 환급에 특약 강화

생명보험업계가 기존 종신보험 시장에 변주를 시도하고 있다. 암, 간병 등 건강보장을 종신보험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모양새다. ‘사후보장’ 뿐만 아니라 ‘생전보장’까지 책임지겠다는 포석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사후보장과 함께 암·간병까지 생전에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장구조의 종신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한화생명 등은 지난 6월 신개념 종신보험인 ‘한화생명 암플러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암에 걸리면 사망보장을 2배로 올려준다. 남은 보험료 부담은 없애고 그 동안 낸 보험료는 암진단자금으로 돌려준다.

암이라는 질병을 종신보험과 연계한 새로운 보장구조로 기존 종신보험의 틀을 깨겠다는 평가를 얻는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에 대응해 인구구조 변화로 퇴색하던 기존 종신보험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불러일으킨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본질적 목적보다 한결음 더 나아가, ‘젊고 건강한 때’보다 ‘늙고 아팠을 때’ 죽음에 대한 대비가 더 절실히 다가오는 보

험의 진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등은 지난 2일 종신보험에 암·간병 등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보장을 결합한 ‘교보암·간병평생보장보험(무배당)’을 선보였다.

보장과 저축 기능을 모두 갖춘 종신보험으로 평생 사망 보장을 받으면서 암이나 장기간병상태로 진단 시 낸 보험료를 100% 돌려받고 이후 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

특약을 통해 최신 암치료 및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여성특화수술, 재해상해 및 재해골절 등을 보장한다. 통합치료를 보장하는 암주요치료 특약과 비급여표적항암약물치료, 재진단암 등 신규특약을 통해 암보장을 강화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암보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생애주기에 맞춰 종신보험과 결합한 상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건강보장을 연계한 종신보험이 흐름을 타면서 생보업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전부터 종신보험에 생전보장을 신경써온 만큼 목적성을 잃어가던 종신보험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분석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종신보험이 사후보장에서 생전보장을 신경써왔다”며 “특히 올해 초부터 건강보장을 연계한 종신보험이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

외국인 ‘바이 코리아’ 국내 투자자는 ‘해외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 총 22.9조 순매수
주식보유액 68조... 시총 30% 달해
국내 외화증권잔액도 184조 최대치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Buy Korea)’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투자 확대에 더욱 몰리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상장주식 순매수는 총 2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6월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순매수

한 상장주식 규모는 2조8980억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순매수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859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7조9000억원 늘었으며,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30.0%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 집계 결과 상반기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로 7조9971억원을 매수했다. 이어 SK하이닉스(3조8039억원)와 현대차(3조4541억원)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금융투자업계는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배경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꼽았다.

반면 국내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

는 ‘서학개미’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외화증권(주식 및 채권) 보관잔액은 지난 3일 기준 1331억5700만달러(183조9617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미국 시장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미국 증권의 보관액은 994억1400만달러(137조3106억원)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낮은 ‘코스피 수익률’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코스피의 연초대비 상승률은 7.63%다. 동기간 미국 나스닥은 22.25% 올랐으며, 전쟁 중인 이스라엘 TA35지수도 9.91%의 상승률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이재명 마케팅’ 과열
- ▲ 국민의힘 전당대회, 광주서 첫 합동연설회 시작 /사진 뉴스IS

- ▲ 통일교육교재, 자유민주주의의 강조... 9·19 합의 삭제
- ▲ 정부 “김여정 ‘윤 탄핵청원’ 언급은 내정간섭”



- ▲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공동성명 “지역 균형발전 합심” /사진 뉴스IS
- ▲ ‘채상병 사건’ 수사 마무리... 6명 송치·3명 불송치 결정

“수출 증가에도 내수 회복 더뎠다… 경기 개선세 다소 미약”

한국개발연구원, 7월 경제동향
광공업·반도체 생산 증가세 불구
자동차·전기장비 등 감소세 확대
수출 조업일수 일평균 12.4% 증가

내수 회복이 더딘 탓에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경제는 고금리 기조에 더해 올해 상반기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 여파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DI는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다수 품목에서 고물가 현상이 최근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5월 전(全)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2.2% 증가)은 연초에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광공업 생산(3.5%)은 반도체(18.1%)의 높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의 한 상점에 채소들이 진열되어 있다.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9%)와 전기장비(-18.0%) 등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도체 경기가 상승하면서 수출과 생산 호조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소매 판매와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내수는 부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6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하

면서 전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된 5.1%를 기록했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12.4%로 전월과 비교해 높았다.

소비를 보여주는 5월 소매 판매(-3.1%)는 승용차(-9.2%), 의복(-6.8%), 음식료품(-3.6%)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소비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된 반면, 해외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5월 설비투자(-5.1%)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5월 건설기성(-3.8%)은 착공면적 감소세가 반영돼 건축 부문의 둔화 흐름이 계속됐다. KDI는 “높은 건설비용 등으로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단시일 안에 건설투자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고 설명했다.

5월 취업자는 8만 명으로, 서비스업 둔화 흐름에 더해 건설업도 위축되면서 증가세가 완만하게 조정됐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농산물(13.3%) 가격의 오름 폭이 전월(19.0%)에 비해 둔화했다. KDI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근원물가 상승세(2.2%)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했으며 농산물·석유류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품목에서 고물가 현상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는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 5월 주택매매시장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락세가 유지되는 등 수요 둔화가 지속됐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20·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 또 줄었다

고용노동부, 상시가입자 1.5% 증가
고용허가 외국인 제외엔 6000명 ↓
제조업 가입자 384.9만명 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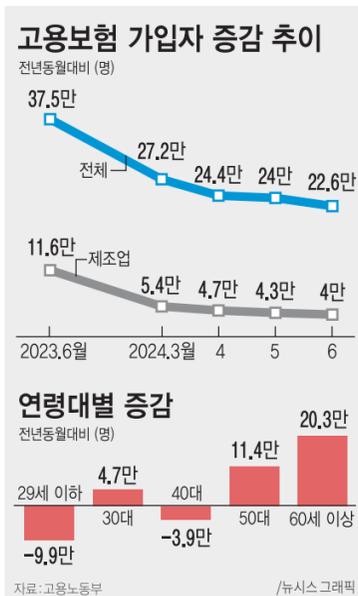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가입자가 증가했으나, 고용허가 외국인을 제외하면 6000명 줄었고, 특히 건설업은 11개월째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인구 구조 변화 영향이 뚜렷하다. 30대와 50대 이상 가입자는 증가한 반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22개월째,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0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2만 6000명(1.6%) 증가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째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엔 2021년 2월(19만 2000명) 이후 40개월 만에 최솟다. 올해 들어선 1월 34만 1000명 증가에서 지난달 22만 6000명까지 내려앉았다.

업종별로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1.1%) 증가했다. 다만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6000명 감소로 집계됐다.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증가한 23만 6000명이다. 고용부는 외국인 도입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전체 신규가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월 36.95%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달 23.0%까지 낮아졌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64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2000명(1.8%) 늘었다.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운수창고 등은 증가를 지속했고 숙박음식업은 증가세가 둔화했다. 반면,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7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1.3%) 줄었고,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4만 7000명), 50대(11만 4000명), 60세 이상(20만 3000명)은 증가했지만, 29세 이하(-9만 9000명)와 40대(-3만 9000명)는 감소를 이어갔다. 고용부는 인구 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봤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0대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코로나 회복기인 2021년 4월 이후로는 지금 38개월째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고용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인구 요인과 특정 산업 요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3000명(-4.0%) 감소한 8만 4000명이다.

/세종=한윤수 기자 hys@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해”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
연속 근무시간 상한 24시간으로
주당 근무 80시간→40시간 축소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줄이고 주당 근무시간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복귀자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시작자는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시작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가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 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어 전공의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네트워크 수련 체계’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24시간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지도 전문의’ 등 교육 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공의가 삼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 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의료, 일차 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뉴스1 selee@

시민단체 “제대로 된 규제법, 산업 활성화”

>> 1번 ‘온플법 2라운드...’서 계속

그는 “배달앱에 수십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000만 명에 달할 만큼 영향력이 큰데도 이들이 마음대로 수수료

와 광고 정책을 변경하고, 입점업체에 물가 인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규제법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오히려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배달 앱 기준,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한데, 앱 수수료는 6.8~12.5%에 달하며 PG수수료 3%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이익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플랫폼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혁신 성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車업계, 원자재 지속가능성 주목... 친환경 체질개선 속도낸다

EU 등 글로벌 환경규제 적극 대응
친환경성 강화로 미래시장 선점
일반부품에 비해 비용부담 증가

해마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맞춰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
년 2억톤 이상 배출되고 있으며 배출량
도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 중
90% 이상이 매립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손실에 직
접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U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폐기물 관련 규제도
강화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적
인 자원순환 관련 규제에 맞춰 친환경 제
품 사용률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
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환경을 조
성하는 데 앞장서 글로벌 톱티어 모빌리
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 BMW그룹, 메
르세데스-벤츠 등은 글로벌 시장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 등 친
환경 부품 사용률을 높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현대차 아이오닉 5.



메르세데스-벤츠 전기 세단 EQS

소재 사용 확대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아는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를 통해 자원순환 관련 규제 강화에 대
비해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을 2030년
까지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
다. 2%에 불과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
한 것이다. 목표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 확대적용 TFT 운영, 폐차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폐차
부품 플라스틱 회수 등 관련 기술 연구
개발과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현대차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적용
을 늘리고 플라스틱과 유리 등 폐기단
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비금속소재를

바이오 소재 등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
며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외에도 사탕수
수과 목재에서 추출한 원료로 바이오 플
라스틱, 야자열매 씨앗 추출물을 활용한
친환경 페인트,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바이오 폴리올을 적용한 친환경 인조가
죽 등 친환경 소재도 개발 중이다.

친환경 소재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적용한 신차도 늘고 있다. 현대차
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사와 재활용
패트 가공 원사를 순수 전기차 '아이오
닉 5'의 도어 트림, 시트에 적용한 데 이
어 '아이오닉 6', 'GV60', 'GV70 전동
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의 헤드라
이닝과 필라트림, 선바이저, 패키징트

레이 등에 적용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환경을 위한 설
계'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속 가능하면
서도 럭셔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
지할 수 있는 신소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재활용 소재의 비중을 대폭 늘리
고, 자연 친화적인 신소재를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뜻을 함께하
는 기업들을 발굴해 실제 양산차에 적용
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재활용 원료
적용 비율을 평균 40%까지 끌어올린
다는 계획이다. 특히 벤츠는 전기 세단 E
QS에 탑재된 부품들 중 80 kg 이상이
재활용 또는 재생가능한 원료 등의 지원
절약 소재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는 'EQE SU

V',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SUV'
와 11세대 '더 뉴 E-클래스'에도 40%
이상을 지속 가능한 소재를 활용했다.

BMW그룹은 친환경 소재를 빠르게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BMW그룹은
2025년 출시 예정인 노이어 클라세 제
품에 어망 등의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
해 만든 플라스틱 부품을 적용한다. B
MW그룹은 30%에 달하는 부품에 재활
용 플라스틱 부품을 적용할 예정이다.
BMW그룹은 2024년부터 BMW와 MI
NI의 모든 차량에 100% 친환경 에너지
로 생산한 알루미늄 휠을 사용하고 있
다. 현재 BMW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2차 원자재 비중
은 평균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이를 40%까지 확대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플라스틱 폐
기물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주요 원자재의
지속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순환
체계를 구축해 부품의 재자원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
다. 이어 "다만 아직 재활용이 가능한 원
자재의 경우 일반 부품에 비해 비용 부
담이 크다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창작자 진입장벽 낮추고 영화·드라마 무한확장

K-웹툰 글로벌성장 비결은

네이버웹툰 150여 개국 진출
웹툰엔터 美 나스닥 시장 입성

네이버웹툰이 한국 콘텐츠 기업 최
초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입성하면서
지난 20년간 성장 가도에 이목이 쏠리
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위에서 아래로
읽는 세로 스크롤 형식인 '웹툰(Webto
on)'을 전세계화 시킨 '웹툰의 기원지'
다. 웹툰은 웹(Web)과 카툰(Cartoon,
만화)의 합성어로, 온라인 만화 콘텐츠
를 뜻한다. 2005년 서비스 시작 이래 네
이버웹툰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진출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8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성공은 웹툰의 진입 장벽
을 낮춰 다양한 창작자를 유입시키고
웹툰을 다양한 장르로 뻗어간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가 공개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올해 3
월 기준 전세계월간활성이용자수(M
AU)가 1억 7000만 명을 기록했다. 연
간 매출은 지난해 12억 8270만 달러(약
1조 7800억 원)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
비 18.84% 상승한 수치다. 특히 일본
에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작년 8월부
터 올 1월까지 MAU 1위를 차지하며,
11개월 만에 연간 거래액이 1000억엔
(약 8800억 원)을 돌파했다. 2016년 미
국에 웹툰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이하 웹툰엔터)를 설립
하고 꾸준히 해외 진출을 도모한 결과
다. 웹툰엔터는 ▲네이버웹툰(한국)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대표 겸 창업자와 창작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셴(Shen), 손재호, 애나 토드, 김준구 대표, 잉그리드 오초아, 김규삼, 조석 /웹툰엔터테인먼트

▲라인웹툰(동남아) ▲웹툰(북미·중남
미·유럽) ▲라인망가(일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150여 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급성장한 데에는 김준
구 웹툰엔터 및 네이버웹툰 대표의 선
구안이 꼽힌다. 김 대표는 27살의 나이
로 네이버 개발자로 입사해 지금의 네
이버웹툰을 설계한 인물로, 만화광으로
유명하다. 2005년 5명의 직원으로 시작
한 네이버웹툰을 그만의 성공방정식으
로 나스닥 상장까지 이뤄냈다.

김 대표의 도전은 네이버 김상현 대표
이사의 전폭적인 지지에서 비롯됐다. 김
대표이사는 만화광인 김 대표를 알아보
고, 평사원인 그를 네이버웹툰 계열사 대
표로 과격적 임명을 단행했다. 이에 힘입
어 김 대표는 ▲작가 발굴 및 육성 ▲작
가 보상 시스템 ▲요일제 게시 정책 등을
통해 웹툰 산업을 활성화했다.

네이버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웹툰 콘텐
츠의 '확장성'이다. 네이버는 웹툰을 드
라마나 영화로 재탄생시키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JTBC 드라마 재벌
집 막내아들' 등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
됐다.

이러한 지식재산권(IP)의 확장은 드
라마나 영화뿐 아니라 OTT 시장까지
정조준하며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았
다. 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 '마스크
걸', 'D.P', 디즈니플러스 '무빙' 등 모
두 웹툰이 원작이다. 이처럼 네이버는
웹툰의 IP 확장에 초점을 두고 하나의
IP를 다른 장르에 접목하는 '원 스토리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use)' 콘
텐츠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한편, 웹툰엔터는 지난 27일(현지시
간) 뉴욕 증시에 상장해 상장 첫날 공모
가보다 9.5% 높은 23달러에 거래를 마
쳤다. 첫 거래일 증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29억 달러(약 4조 원)에 달한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나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4400억 달러의 투자금을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IP 사업 확장, 기
술 혁신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

산업부, '수출성장 플래닛' 발대식 42개 중소·중견기업 수출 전과정 지원

실적별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 신설

정부가 수출 잠재력은 높은 중소·중
견기업을 선정해 수출 실적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프
로그램을 신설해 최장 15년간 수출 전과
정을 파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웨
스틴조선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보험공사
주최로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
대식을 개최, 지원 대상 42개사를 선정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장영진 무보 사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중견 대
표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수출 잠재력이 높
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실
적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이다. 수출성장 플래닛
공모에는 총 410개사가 신청했고, 서류
심사와 심층심사로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무보는 현재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
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
망 중소·중견기업을 기존 수출실적과 신
용등급에 따라 '이머징스타(수출 100만
달러이하)', '라이징스타(100만~3000만
달러)', '사이닝스타(3000만달러 초과)
' 등 3단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기업별 지원기간은 최대 5년(기본 3
년, 2년 연장)이고, 지원기간 종료시점
에 상위그룹 조건 달성시 자동 승격된
다. 이머징스타 그룹에서 최초 선정 후
라이징스타, 사이닝스타 그룹으로 승격
시 최장 15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수출성장
플래닛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
력 품목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총 42개 기업이 선정
됐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보험책
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을 계약·제작·선적·수출대금 회수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특별무역금융
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우
상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역
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금융,
마케팅, 물류 등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
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
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금번 수출성장
플래닛은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무역보
험 프로그램으로서, 지원 대상기업을
향후 3년간 100개사로 확대해 나갈 계
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미약품 오너일가 경영 전면 퇴진... '전문경영체제' 도입

“전문경영인 체제로 새롭게 재탄생”
선진화된 지배구조 확립할 것 강조
임종윤 ‘장남 일감몰아주기’ 의혹

경영권 분쟁으로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한미약품그룹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8일 한미약품그룹에 따르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송영숙 회장은 앞서 지난 3일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일부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약정을 맺었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각각 신 회장 12.43%, 송 회장 11.93%, 임 부회장 10.43% 등 34.79%다.

해당 주식매매계약으로 향후 신동국 회장 지분은 18.92%로 늘어나고, 송영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한미약품그룹

숙 회장의 지분은 6.16%로,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은 9.70%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신 회장의 지분이 송영숙·임주현 모녀의 합산 지분(15.86%)보다 많아지는 가운데, 신 회장이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손을 잡으면서 세 사람의 우호 지분은 총 48.19%에 이르는 것으

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영숙 회장은 “늘 한미를 돕겠다고 하셨던 신 회장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미는 신 회장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한미약품그룹 지분을 해외 펀드에 매각함으로써 한미약품이 기업 정체성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 전문경영인은 경영을 맡고 동시에 대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송영숙 회장은 신 회장과 대주주 가족이 힘을 합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송 회장은 “신 회장은 저희에게 가족과도 같은 분”이라며 “임종윤·종훈 사장을 지지하기로 했던 지난 결정에도, 저와 임주현 부회장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번 결정에도, 모두 감사드리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동국 회장은 그동안 한미약

품그룹 오너가 경영권 분쟁의 ‘키맨’으로 등장해 왔다. 신 회장은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을 공개 지지해 두 사람의 승리에 힘을 보탤다. 이후 최근에는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으로 돌아서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향방을 바꿨다.

현재 송영숙 회장은 이번 발표 후 한미약품그룹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 명예 회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사내이사직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갈등 봉합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선 남은 과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이사진은 송영숙·신유철·김용덕·곽태선 등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모녀 측 4명과 임종윤·임종훈·권규찬·배보경·사봉관 등 형제 측 5명으로 구성됐다. 모녀 측이 의사결정 시 과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

운 구조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어 송영숙 회장과 신동국 회장은 과반수 확보에 주력, 추후 임시 주총을 열어 새로운 이사 선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신동국 회장과 대화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해 임종윤 사내이사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특히 임종윤 사내이사는 지난 6월 한미약품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목표했던 한미약품 대표이사에는 오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울러, 임종윤 사내이사는 ‘장남 일감몰아주기’ 의혹에도 휩싸였다. 북경 한미약품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임종윤 사내이사가 실소유주인 홍콩 코리그룹 계열사 룬메이강에 넘겨 유통하게 하는 등 부당 내부 거래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 북경한미약품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해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유통가, 경기침체·고물가에도 2분기 실적 ‘선방’... “안심하기 일러”

롯데쇼핑·이마트 등 전년비 소폭 증가
신세계·현대백,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
“3·4분기 경제 상황에 총력 대응 필요”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됐음에도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올해 2분기 실적은 비교적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닝서프라이즈까지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8일 유통업계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증권은 롯데백화점의 2분기 영업이익이 6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슈퍼와 롯데홈쇼핑 영업이익은 각각 80억원, 4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0%,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최빛나 기자

10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쇼핑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0.04% 오른 3조6235억원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515억원에서 715억원으로 36.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롯데마트와 롯데온 영업이익은 각각 20억, 190억으로 추산되면서 전년 동기

적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세계는 2분기 1조67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9.54% 감소한 1353억원으로 추산됐다.

현대백화점은 9703억원에서 1조26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세계의 영업이익은

14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5% 감소하고, 현대백화점의 영업이익은 556억원에서 507억원으로 8.79% 줄어 들었다.

대형마트 중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마트도 적자폭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증권사 2곳의 컨센서스 집계 기준으로 작년보다 0.32% 감소한 7조2481억원으로 전망됐다. 영업손실은 작년 2분기 530억원에서 올해 327억원으로 적자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는 그간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둔화가 지속된 가운데 유통업계의 이같은 호전된 실적은 기업들에는 단비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인터

뷰에서 “2분기는 대부분의 유통업계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친 덕에 최악의 성적표는 면했다. 하지만 3·4분기의 경제도 녹록치 않은 가운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추석, 연말행사 등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대 10일 이상 진행되고 있는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식품군과 생활품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실적이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장마철에 이어 폭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식품, 생활품 분야를 중심으로 마트, 백화점 등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CJ올리브영 “전국 거점망으로 고객 편의 높일 것”

부산서 ‘도심형 물류 거점’ 본격 가동
300평 규모 하루 최대 6000건 처리
“주요 광역시·지방 중소도시 확대 목표”

CJ올리브영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고객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리브영은 이달부터 ‘MFC해운대’를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MFC는 ‘도심형 물류 거점’을 의미하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약자다.

올리브영은 앞서 지난 6월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MFC해운대를 마련하고, 시범 운영해 왔다. 올리브영이 서

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해 온 MFC를 부산 등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FC해운대는 약 300평 규모로, 부산 동부권에 해당하는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일대의 ‘오늘드림’ 배송을 맡고 있다. 인근 매장의 재고 보관 기능도 수행한다. 유통세일을 비롯해 온라인 주문이 몰리는 시기에는 하루 최대 6000건에 달하는 배송을 처리할 수 있다.

올리브영은 오는 8월에는 ‘MFC사상’을 열어 부산 서부권의 ‘오늘드림’ 물량 일부를 소화해 낼 계획이다.

MFC를 바탕으로 실행되는 ‘오늘드

림’은 올리브영이 지난 2018년 말부터 선보이고 있는 배송 서비스다.

‘오늘드림’은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 없이 주 7일 상시 이용 가능하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상품을 주문하면 ▲낮 12시~13시 ▲15시~16시 ▲22시~24시 지정 등 원하는 시간대에 배송받을 수 있다.

올리브영은 처음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온라인몰 및 모바일 주문 상품을 당일 3시간 이내 배송함으로써 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받고 싶다는 고객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에는 ‘오늘드림’ 배송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주요 상권 및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매장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올리브영은 전국매장 고도화와 함께 MFC 확장을 통해 커머스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리브영은 도심형 물류 거점망(MFC 네트워크)을 주요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리브영은 오는 2025년까지 20개 이상의 MFC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체 온라인몰 주문의 절반 가량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올리브영이 보유하고 있는 MFC는 총 12곳이다. 지난 2021년 ‘MFC강남’을 시작으로 온라인 주문 가속화에



올리브영 MFC성남점에서 근무자가 ‘자동 분류기’로 분류된 상품을 검수하고 있다. /CJ올리브영

발맞춰 물류 시설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올리브영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We Do Technology | 

韓 “비방으로 내부총질” vs 元 “팀워크 못하면 대표자격 없어”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

윤상현 ‘기득권 혁파’ 키워드
한동훈 “보수정권 재창출할 것”
나경원 “尹 정권 성공, 李 퇴출”
원희룡 ‘尹 팀워크’ 장점 꼽아



한동훈(왼쪽부터),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첫 합동 연설회가 8일 열린 가운데, 4인의 당 대표 후보들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혁신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각자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에 당 대표 후보들이 제각각 서로를 비방하면서 선거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는 가운데 열리는 첫 합동연설회로서 기대를 모았다.

윤상현 후보는 ‘기득권 혁파’를 키워드로 잡았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당 중앙을 폭파시킬 심정으로 창조적 파괴, 전면 대혁신에 나서달라. 저 윤상현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러

면서 “윤심이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그게 윤심인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최근 당 대표 선거전에 나타나는 분열 양상을 직격했다. 한 후보는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나”라며 “축제의 장이여야 할 전당대회가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는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 서 이기면 뭐가 남나”라며 “저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라며 “국민의힘의 열망인 보수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이 ‘너를 이렇게 쓰고 버리기에 100일이 짧았다’, ‘너라면 폭주한 이재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잘 보셨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도 호소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와 원희룡 후

보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강점을 내세웠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 대표, 눈치보는 당 대표로는 안 된다. 집안꼴이 되겠다”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잘하는 거 팍팍 밀어 드리고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다 파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탄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몽땅 붕괴시키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이재명을 퇴출시키겠다. 저 나경원이 끌어내리기 전문인 것 아시지 않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끌어내듯이 이재명을 확실히 끌어내리겠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 후보는 대통령과의 ‘팀워크’를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 당과 대통령 모두 위기다. 대통령 지지율 26%, 국민의힘 지지율 33%.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정말 이리다가 다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바꾸고 당도 바뀌어야 한다”며 “화정동 아이파크처럼 전면 재시공에 대비화가 필요하다. 최고의 팀워크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찾아서 국정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원 후보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며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못하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겨서 실험하기엔 매우 위험하다”며 한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부자감세로 세수결손 지적… 최상목 “절대 그렇지 않아”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법인세·기업이윤 등 급감 원인 올해도 세수 사정 그렇게 좋지 않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8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1~2년 단기적인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일회비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자감세로 세수결손 사태가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 묻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정책 운용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시장과 해야 할 역할 중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기초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를 대비한 재정지출을 반영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구 의원은 “기재부 자료를 보면 세수 부족분이 세목 중에 법인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작년 반도체와 제

조업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인 글로벌 불안정 여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때문 아닌가. 세수 결손이라는 주장은 억측이고 비약이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나 자산시장 세수 추계는 어느 국가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분야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다”며 “조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예산불용액은 45조원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감액 추경을 실시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용액 처리와 세수 결손을 나누고, 감액 추경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과 예산결정권 위

배 사안”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부족분이 커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추경해서 그것을 감액 경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가 채무가 늘기 때문에,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체에 여유 재원을 갖고 대응해 실제 불용규모는 1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이 “정부가 세수 추계 및 불용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1.4% 경제 저성장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세수 펀크 핵심이 법인세와 양도세 2년간 감면액이 144조6000억원이다. 결론은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결손에 기여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태홍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병원 진료비, 10년새 5.5배 폭등

“경미한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치료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한방병원 진료비가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새 5.5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한방진료비는 ▲2024년 2722억원 ▲2015년 3576억원 ▲2016년 4598억원 ▲2017년 4598억원 ▲2018년 7139억원 ▲2019년 9569억원 ▲2020년 1조1238억원 ▲2021년 1조3066억원 ▲2022년 1조4636억원 ▲2023년 1조48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10년 새 증가폭도 컸다.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7배, 침약은 747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3.7배 늘었다.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가 일

반 병·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방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 환자수를 추월하던데, 지난해는 한방 환자수가 162만8905명, 일반 병·의원 환자수가 145만265명으로 한방 환자수가 18만명 가까이 많아졌다.

한방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비 규모는 한방병원의 확장도와 관계가 깊다.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일반·한방 포함)은 2014년 1만6245개소에서 지난해 2만594개소로 26.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한방병원은 224개소에서 534개소로 무려 138.4%나 폭증했다. /박태홍 기자

與 “순직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여야 합의 과정 생략한 위헌투성이”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한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또 다시 민주당이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

로 강행 처리할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의 특검법안 처리가 정쟁용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한층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신한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정상혁 은행장이 '고객몰입의 끈을 고쳐 매고 고객의 실리(實利)를 높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

“고객 체감할 수 있는 차별점 만들어야”

신한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정상혁 은행장 “신뢰구축 앞장”

신한은행이 신뢰 구축에 방점을 찍은 하반기 영업 기조를 수립했다.

신한은행은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240명이 참석했다. 지난 상반기 주요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 경영 슬로건은 '고객몰입의 끈을 고쳐 매고 고객의 실리(實利)를 높이자'로 낙점했다. 이어 전략 및 영업현장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유했다.

커뮤니티장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위

크숍을 진행했다. 하반기 전략추진 방향을 영업현장에 빠르게 전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행장은 “기본에 더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고객의 신뢰다”며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거래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내부통제 자체를 문화로 받아들이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차별적인 솔루션과 디지털 기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점을 만드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박화재 CIO 취임... '전통 금융맨' 역량 기대

영업점·본사 리스크관리 인정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 총괄 사장(사진)이 군인공제회(군공) 신입 금융투자부문이사(CIO)로 취임했다. 17조원 규모의 운용자산을 굴리는 금융투자부문 수장인 만큼, '전통 금융맨'의 역량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박화재 CIO가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군인공제회 CIO는 금융투자, 리서치,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실무와 관리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투자 분야 임원 경력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개인 윤리와 도덕성이 투명하고 조직관리,



경영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1961년생인 박 신임 CIO는 광주상고 졸업 후 우리금융 고위 임원에 오른 입지 전적인 인물로 43년 동안 여신전문가의 길을 걸었다.

우리은행 전신인 한국상업은행에 1980년 입사해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 단장과 서초영업본부장, 업무지원그룹 상무, 여신지원그룹 상무, 여신지원그룹 집행부행장,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을 역임한 후 올해 3월까지 원피앤에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투자 경력이 보이지 않는 박 신임 CIO지만, 영업점과 본사에서 보여준 리스크관리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승용기자 lsy2665@

DL이앤씨, '잠실 우성4차' 재건축 수주

3817억 규모 단독 시공

DL이앤씨가 잠실우성4차 재건축의 시공권을 따냈다.

DL이앤씨는 '잠실우성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3817억 원 규모로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시공한다. 해당 사업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2층, 9개 동, 총 825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2026년 9월 착공에 들어가 2030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잠실우성4차는 탄천 조망을 누릴 수 있고 지하철 9호선 삼전역, 올림픽대로

등의 교통인프라는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 등 풍부한 생활 및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 또한 잠실 마이스(MICE)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다양한 개발호재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차별화된 설계와 상품을 바탕으로 잠실우성4차를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에 걸맞은 또 하나의 주거명작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갈 곳 없는 투자대기자금 잡아라 최고 연 4% 파킹통장 경쟁 후끈

5대 시중은행부터 저축은행까지
수시입출금통장 연 3.5~4% 경쟁
SC제일銀 ‘Hi통장’ 최대 연 4%
OK저축銀 ‘파킹플러스통장’ 개선

수익성과 유동성을 함께 쟁길 수 있는 ‘파킹통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금융권 내 각축전이 치열하다. 수시입출금통장인 파킹통장은 투자자금을 잠시 맡겨 두는 계좌다. 요구불예금으로 고금리를 제공해 뭉치돈을 유인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과 요구불예금 잔액은 638조8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4조7262억원 증가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보수적인 투자성향이 강해지면서 신규 회원을 확보하려는 금융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른바 ‘파킹통장’으로 불리는 수시입출금통장에 연 3.5~4% 수준의 고금리를 적용하면서다. 높은 이자로 잘 알려진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권도 파킹통장 금리 경쟁에 나섰다.

은행권은 지방·외국계은행이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자금조달과 신규 회원 확보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은행채(AA+/3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3% 중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은행권 파킹통장은 0.3~0.5%포인트(p) 수준의 가산금리를 지급해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SC제일은행의 ‘Hi통장’이다. 한도 없이 최대 연 4% 금리를 적용했다. 월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의 특성상 5000만원을 예치하면 연간 172만원의 순이익을 만들 수 있다. 첫거래, 비대면가입 회원이 마케팅 동의를 하면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의 ‘BNK파킹통장’과 광주은행의 ‘365파킹통장’의 금리는 연 3.5%다. 경남은행 또한 가입 대상을 첫거래 개인고객으로 한정했고 광주은행은 최근 6개월간 당행 거래 내역이 없어야 한다. 양사 모두 신규 회원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

저축은행은 중대형사를 중심으로 파킹통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황 악화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신규 회원 확보를 통해 상표가치를 높이려는 것.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는 홈페이지 내 입출금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시작했다. 파킹통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달 OK저축은행은 ‘OK파킹플러스통장’을 개선해서 출시했다. 예금잔액 500만원 이하 연 3.5%, 501만원~3억원 이하 분은 연 3.0% 금리를 탑재했다. 지난 1분기 OK저축은행의 거래자수는 107만4477명으로 전년 동기(92만163명) 대비 16.8%(15만4314명) 증가했다.

같은달 키움저축은행도 파킹통장을 내놓았다. ‘더 키움 파킹통장’의 금리를 연 2%로 책정했다. 금리경쟁력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중형사의 파킹통장 출시가 이례적이란 의견이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금리비교 기능을 신설한 만큼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파킹통장은 예적금 대비 유동성이 높은 만큼 주력 자금조달 수단은 아니지만 마케팅에는 효과적이다”라며 “통장 개설 시 금리와 함께 한도, 지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본격 장마철... 보험사, 車침수예방 만전

업계, 비상 대응체제 운영 등 분주
역대급 강수량 예고로 손해를 비상
당국 ‘긴급대피알림 서비스’ 개시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시름하는 보험업계가 계절성 집중호우로 발생할 자동차 침수 피해 예방에 분주하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하는 등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기상청은 올 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7~8월 모두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이 40%에 달한다. 평년보다 강수량이 떨어질 확률은 20%로 예측됐다.

역대급 강수량 예고로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비상이 걸렸다. 5대 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 등)의 1~5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4%로 지난해 76.8% 대비 2.6%포인트(p) 상승했다. 업계는 통상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아직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손해율 상승을 우려한 보험사들은 장마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 중이다.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 및 위험지역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청계천 산책로가 침수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

사전 침수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비상팀은 매년 폭우와 태풍 등 큰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올해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 93개, 둔치 주차장 281개 등 전국 374여곳 이상 침수 예상 지역 리스트를 최신화했다.

KB손해보험은 ‘혹서기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차량 보상과 고장출동 서비스 급증 상황에 대비한다.

손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사전준비 및 예방 단계 ▲초기관제 단계 ▲현장관제 단계 ▲비상캠프 단계로 비상대응 단계를 세분화해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취급 손보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은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한다.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 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긴급대피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가 가능해지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업계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이차전지업계, 한국형 소재산업 생태계 일군다

에코프로 등 설비 투자 확대
양극재 신규공장 건립 추진
포항시 핵심 산업단지 전망

경북 포항시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이차전지 업계가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포항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이차전지 소재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산업이 성장의 중심지로 포항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껏 포스코 아래 '철강의 도시'라는 인식이 강했던 포항시가 이차전지 기업 유치에 본격 나서며 경제적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이차전지 관련 업계는 포항에 기반을 두고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보이는 기업은 에코프로다.

에코프로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 단지에 양극재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



에코프로 포항캠퍼스 전경

/에코프로

를 위해 경상북도·포항시 등과 함께 배터리 양극재 신규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코프로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69만4000㎡(약 21만평)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2조원을 투자해 배터리용 원료,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양극재 밸류체인 허브인 '블루밸리 캠퍼스(가칭)'를 구축한다. 올 4분기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첫 가동이 목표다.

에코프로 송호준 대표는 "블루밸리 캠퍼스 추가 조성을 통해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시장에서 글로벌 탑 티어의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 열심히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 지역 주민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에코프로가 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 또한 포항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양극재용 전구체와 음극재 생산능력 확대에 매진 중이다. 지난 5월 포스코퓨처엠은 화유코

발트, 경상북도, 포항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극재 중간소재인 전구체와 음극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세계 최대의 코발트 생산 기업인 화유코발트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약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용 양극재의 중간소재인 전구체와 고순도 니켈 원료 생산라인을 건설한다. 공장은 2027년까지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내 267,702㎡(약 8만평)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원료 조달에 강점이 있는 화유코발트와의 니켈·전구체 투자로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연산 10만 6000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기와 연계한 니켈-전구체-양극재 밸류체인 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확보해 배터리 소재 사업의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가정용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 /LG전자

LG전자 가정용 환기 시스템 선봬

LG전자가 8일 가정용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 구독상품을 출시했다.

가정용 환기 시스템은 창문을 열지 않고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이산화탄소(CO2) 등으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고 필터를 거친 깨끗한 외부 공기를 집 안으로 공급하는 제품이다.

LG전자가 새로 출시한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 구독상품은 전문가가 6개월마다 고객의 집을 방문해 제품의 작동 환경을 점검하고, ▲내부 클리닝 ▲전열교환소자 클리닝 ▲UV살균 ▲피톤치드 탈취 ▲필터 교체 등 내·외부를 꼼꼼하게 관리해 준다. /김서현 기자 seoh@

한국타이어 'e 밴트라' 시리즈 출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전기 경트럭 및 밴 전용타이어 신제품 'e 밴트라' 시리즈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8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e 밴트라' 시리즈는 전기차의 무거운 하중을 견디고 오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전기차 장착 시 기존 자사 제품 대비 30% 향상된 마일리지 성능을 갖추고 있다. 또 젖은 노면에서는 13%, 마른 노면에서는 4%의 핸들링 성능이 향상돼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울포지션용 제품 'e 밴트라 트랜짓'은 전륜 및 전후륜으로 장착 가능하다. 3D 미세홈을 적용해 주행 시 생기는 블록 강성 증대 및 변형을 최소화했다. 드라이브 포지션용 제품 'e 밴트라 드라이브'는 블록형 패턴 디자인과 엇갈린 그루브, 넓은 횡방향 커퍼 적용으로 최적의 강성 밸런스를 구현했다. 유튜브 영상 제공



/양성운 기자 ysw@

삼성 "갤럭시 신제품 사전구매 알림 신청 10만명 돌파"

'사전구매 알림신청' 이벤트·설문
AI기능 등 새로운 폴더블폰 기대

오는 10일 예정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을 앞두고 폴더블폰 신작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사전구매 알림 신청이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진행중인 새로운 갤럭시 사전 구매 알림신청 참여자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동일 기간 기준 국내 출시된 폴더블 사전 구매 알림신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전구매 알림신청' 이벤트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닷컴에서 진행중인 새로운 갤럭시 사전 구매 알림신청 웹페이지

/삼성전자

조사 결과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라고 답한 고객이 93%로 갤럭시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6%가 가장 관심 있는 제품으로 폴딩-폴딩형 스마트폰을 선택했다. 이어 바 타입 스마트폰 16%, 워치 13%, 버즈 10%, 태블릿

7%, 스마트링 6%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새로운 폴더블폰에서 가장 기대되는 AI 기능은 번역과 카메라 기능이 25%로 가장 높았고, 사진 편집 15%, 검색 1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여행&경험과

기술이 각각 20%, 18%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에서 통번역, 카메라 등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해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10일 오후 10시(한국시간)에 개최하는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 AI가 탑재된 새로운 폴더블폰 신작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전 구매 알림신청 이벤트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오는 10일 삼성전자의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완성한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의 새로운 갤럭시 신제품들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효성중, 3300억 규모 변압기 사업 수주

스타트넷에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

효성중공업이 노르웨이에서 초고압 변압기를 연이어 수주하며 유럽 전력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노르웨이 국영 송전청 Statnett(스타트넷)에 총 3300억원 규모의 420kV(킬로볼트) 초고압변압기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3040억원 규모의 물량을 지난 5일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한 물량은 노르웨이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충 및 노후화된 설비 교체를 위한 것으로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유럽의 전력 시장은 전통적으로 기술력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경쟁사들이 집중돼 기술적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효성중공업은 설계부터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수주한 물량은 효성중공업이 지난 2020년 처음 노르웨이 시장에 진입한 이래 최대 규모다. 효성중공업은 2023년에도 1300억원 규모 420kV 초고압변압기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으며 현재 노르웨이 초고압변압기 시장에서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유럽 시장에서 효성중공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만큼 유럽을 기반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제철소 소결공정 AI 적용

RIST 데이터분석 용역 계약 체결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내외 발전분야에서 축적한 디지털 사업 역량을 철강 산업 분야로 확장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철강 및 환경에너지 기술 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하 RIST)과 '소결공정 AI 적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RIST는 포스코가 전액 출연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포스코 그룹의 핵심사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RIST와 포스코 제철소 내 소결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운전 적용성을 오는 12월까지 분석할 예정이다. 소결(si

ntering)은 고체 가루에 열과 압력을 가해 입자를 결합시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기술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송용진 전략혁신부문장은 "이번 계약으로 국내외 발전소에서 검증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디지털 기술력과 RIST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합쳐져 향후 소결 설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생산되는 소결광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 2013년부터 데이터분석팀, 디지털솔루션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이노베이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AI 기반 최적화 솔루션을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등 산업 첨단화에 기여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KBI동국실업 멕시코 공장 증설 완료

KBI그룹 자동차 부품 계열사 KBI동국실업이 북미 고객사 공장 생산 확대에 발맞춰 멕시코 공장 증설을 완료했다.

KBI동국실업은 멕시코 공장을 매출 1000억원 규모의 생산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증축을 지난달 26일 완공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공장 증설에 착공한 KBI동국실업의 멕시코 공장은 1년동안 400억원을 투자해 1만 4720㎡ 증축을 완료하고 사출 성형기 및 IMG 성형기를 도입해 라인의 자동화와 현대화 구축으로 생산의 효율화를 극대화했다.

KBI동국실업은 멕시코 공장 증설로 올해 예상 매출 420억원에서 내년엔 55% 증가한 65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게임 속 몬스터·의상 등 인문학적 요소 가미된 ‘한국 문화’

크포

엔씨소프트 사내도서관

국내외 서적 포함 4만여권 소장 게임 배경에 참고할 식물·자연 전장장비·의상 등 도서도 구비 “K-콘텐츠 속에서 상호작용”

“게임은 예술입니다.”

통념적으로 단순 오락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게임에 의외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인문학이었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사내 도서관에 들어서니 뽀뽀하게 공간을 가득 채운 책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도서관 한 쪽 공간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보였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을 제작할 때 캐릭터 하나, 배경 요소 하나도 책을 참고하고 고민한다며 게임을 “그 자체로 예술”이라 표현했다.

8일 방문한 엔씨소프트 사내도서관은 방대한 양의 도서를 자랑하고 있었다. 현재 엔씨소프트 사내도서관은 국내외 서적을 모두 포함해 총 4만여 권이 넘는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도서관의 시설을 설명하며 “엔씨소프트 사내 도서관은 직원들이 필요한 책,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다 구비해준다”며 “동시에 사내 도서관은 책을 기부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1 엔씨소프트 사내 도서관 내부. 2 책 분류 표지. 3 리니지 원작 만화.

지금까지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 유희거리로만 인식돼 왔다. 일반 대중의 이 같은 인식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증명이라도 하듯,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게임 이용장애를 국제 질병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이 WHO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난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에서는 게임 이용이 장애로 판단돼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전세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게임업체들 내부를 들여다보

면, 게임은 단순 유희의 요소에 불과한 오락거리가 아니었다. 게임은 인문학적 요소가 가미된 하나의 ‘한국 문화’였다.

엔씨소프트의 경우도 사육에 방문과 동시에 안 쪽으로 들어가니 도서관 내부에 특별한 책 분류 표지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 인문, 과학의 분류가 아닌 몬스터, 의상, 전장장비라는 제목의 책 분류 표지가 책 사이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몬스터, 의상, 전장 장비 외에도 모든 게임 배경을 만들 때 여기 있는 책들을 참고해서 아이 디어를 얻는다”고 말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심지어 더 안 쪽으로 들어가니 식물, 자연이라고 분류된 책 보관 장소도 존재했다. 게임 배경을 이루는 사소한 식물 하나까지도 책을 통한 인문학적 고뇌와 기획자들의 고민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임에도 다양한 지식을 포함한 인문학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단순 게임 캐릭터와 배경 묘사뿐만 아니라 게임 내부의 이야기에 인문학적 요소가 가미돼 있었다. 도서관을 돌고 출구로 나서기 직전,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게임 리니지의 원작 만화책이 눈에 띄었다. 신지연 작가 특별전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된 리니지 1권, 2권, 3



권의 책이 일렬로 배치돼 있는 것.

회사 관계자는 “리니지 게임의 원작은 만화책에서 시작됐다”며 “문화 콘텐츠의 70%가 게임이다. 결국 게임도 그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K-콘텐츠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SKT, 글로벌 통신사들과 AI 혁신 가속화

싱텔과 네트워크 기술 협력 MOU 6G 적용사례 개발 등 공동개발 확대

SK텔레콤이 글로벌 통신사들과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통신업에서의 인공지능(AI) 혁신에 속도를 낸다.

SK텔레콤은 싱가포르 1위 통신사업자 싱텔과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다방면의 네트워크 기술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동통신망의 서비스·기술 혁신을 주도한다는 포부다.

SK텔레콤과 싱텔은 주요 글로벌 통신사들의 AI 연합인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lobal Telco AI Alliance)’의 창립 회원사다. 이번 MOU는 통신과 AI를 결합해 자체 AI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됐다.

양사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엔지니어링·구축·운영·솔루션 등 다양한 상용망 분야에서 기술 논의와 인력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에지(Edge) AI 인프라 적

용과 코어망 운용기술 연구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무선 이동통신망 진화 기술 전략 ▲6G 적용사례 개발 ▲ESG 관점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 교류를 시작으로 공동 개발, 연구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지 AI 인프라는 에지 컴퓨팅을 통해 클라우드로 집중되는 연산부담을 줄이고 AI 솔루션을 결합해 AI추론을 수행한다. SK텔레콤은 싱텔과 관련 기술 연구 공동 추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AI 서비스 제공 방안까지 구체화한다는 목표다.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CSPO)은 “SK텔레콤과 싱텔의 협력은 글로벌 통신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효율적인 고성능 네트워크 구축, 안정적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뿐 아니라 AI 무선 인프라 등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에서 성과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테이 요우 리안 싱텔 네트워크 담당 매니징 디렉터는 “5G 기술의 선도 기업으로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AI 인프라 도입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SK텔레콤과 고객 경험 강화 뿐 아니라 업계 혁신과 6G로 진화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신일 BLDC 폴딩팬 이미지. /신일전자

신일전자 폴딩팬 누적판매 72억

종합가전기업 신일전자는 자사무선 BLDC 폴딩팬이 출시 3년 만에 누적 판매량 약 72억 원 규모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출시된 무선 BLDC 폴딩팬은 접이식 형태로 휴대가 간편해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다. 신일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24년형 폴딩팬’을 출시했다.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배터리 효율, 모터 성능, 편의성 등을 개선했다.

24년형 무선 BLDC 폴딩팬은 자유로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스탠드 ▲테이블 ▲폴딩 3가지 타입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가 용이해 좁은 공간이나 이동 시에는 전용 가방에 넣어 보관할 수 있다.

최저단계 사용 기준 최대 약 6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 44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했다. 고성능 BLDC 모터를 탑재하여 저전력으로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바람을 제공한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

아우디 “Q4 e·Q8 e-트론 시승하세요”

롯데몰 김포공항서 ‘써머 라운지’

아우디 공식딜러 바이에른오토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롯데몰 김포공항점 MF층 로비에서 바이에른오토 아우디 써머 라운지 전시·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8일 밝혔다.

지난달 바이에른오토와 롯데몰 김포공항점의 마케팅 파트너십 협약 체결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최근 3개월 독일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아우디

Q4 e-트론’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출시된 대형 프리미엄 순수전기 SUV ‘아우디 Q8 e-트론’까지 모든 라인업의 아우디 차량을 직접 시승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의 전시행사가 부족했던 서울 강서구에서 개최되어,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가까운 서울 강서 지역을 포함하여 김포, 부천, 인천, 일산 등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고객들이 가족·연인과 함께 참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

롯데렌탈, MSCI ESG평가서 ‘AAA’ 획득

동일업종 세계 최초 최고 등급

롯데렌탈은 투자정보 제공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최상위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롯데렌탈은 전 세계 지상여객운송업종에서 A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자사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MSCI ESG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평가로 매년 전 세계 850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 현황을 평가해 7개 등급(AA-A-AA-A-BBB-BB-B-CCC)으로 분류한다.

롯데렌탈은 2022년과 작년 2년 연속 동종업계 최고 수준인 AA 등급을 획득했고, 올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받았다.

롯데렌탈과 함께 AAA 등급을 받은 국내 상장사는 SK,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등 6개 기업 정도다.

/양성운 기자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2024.07.17(수) 14:00~17:00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前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前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 연구센터 대표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 및
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 행사개요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록: 사전등록 무료(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과 금융투자시장 전망
강연	15:00~15:40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해외주식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美·日 상승장에 ‘서머 랠리’ 기대... 국내증시도 동반 오름세

S&P 500·닛케이 지수, 최고치 경신 뉴욕증시, 엔비디아·테슬라 견인 빅테크 중심 2분기 실적 시즌 앞뒤 내달까지 강세장 이어질 전망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치 25% 상회 코스피 상승 연장 기대감 높아져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투자자들이 서머 랠리를 기대하며 활기차게 토론하는 이미지.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주요 증시가 상승장을 이어가면서 ‘서머 랠리(초여름인 6~7월경에 나타나는 강세장)’ 기대감도 오르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된 실적 시즌도 증시 강세에 힘을 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증시도 동반 오름세가 예상된다.

8일 인베스팅닷컴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0.54%, 나스닥 지수는 0.90%씩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이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다. 1월부터 우상향 흐름을 보였던 닛케이 225 평균주가(닛케이 지수)도 지난 4일 4만913.65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5일에도 장중 4만1100대까지 터치했으나 결국 보합 마감했다.

최근 뉴욕 증시를 견인한 종목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이다. 최근 2주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6.53% 올랐으며, 테슬라

도 최근 8거래일간 연속 상승하면서 37.75% 뛰었다. 고공행진하던 엔비디아 고점론과 함께 주춤하자 테슬라가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인텔스는 연일 신고가 경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시세는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으며, 나머지 종목은 아직 중립적”이

라며 “빅테크 내부에서는 기존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숨을 고르는 반면, 나머지 종목들이 선전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빅테크 중심의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7월 중순부터 2분기 실적 보고를 시작하기 때문에 8월까지는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은 8월 후반에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

서 연구원은 “실제 금리 하락시에 빅테크의 과열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상존한다”며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는 기존 주도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해 주는 형태로 나타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적이 부재한 곳에는 유동성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의 인하 시기를 9월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되면서 그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6월 실업률은 4.1%를 기록했다. 이는 4.0%이었던 5월보다 올라갔으며, 2021년 11월(4.1%)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상황이 예상된다. 지난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74조원, 영업이익은 10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하며 실적 시즌의 개막을 알렸다. 영업이익의 경우, 시장예상치를 25% 웃도는 ‘깜짝 실적’이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한 코스피의 상승 연장 기대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 미국 증시도 JP모건을 비롯해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시즌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테슬라 강세에 이차전지 ETF 수익률 ‘쑥’

테슬라 주가, 최근 한 달간 44% 올라 후 인도 실적·이차전지 수출액↑ 영향 하반기에도 이차전지 성장세 지속 전망

올들어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약세를 보였던 이차전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최근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차전지 관련 ETF의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지속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주간 이차전지 관련 ETF의 수익률이 반등했다. 국내 이차전지 섹터 상승에 2배로 베풀리는 레버리지 상품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이차전지TOP10레버리지’는 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에프앤가이드 이차전지 산업지수를 2배 따라가는 레버리지ETF인 KODEX 이차전지산업레버리지도 같은 기간 4%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밖에도 TIGER이차전지TOP10(3.82%), KBSTAR 이차전지TOP10(3.52%), TIGER 이차전지테마(2.29%) 등의 수익률도 개선됐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주가 강세가 이차전지 관련 ETF의 수익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지난 4월에 52주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던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한달 동안 44%가량 상승했다.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린 건 올해 2분기 차량 인도(판매) 실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테슬라는 지난 2분기의 인도량이 월가 전망가 예상치(43만 8019대)를 웃도는 총 44만3956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38만6810대)보다 15%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한 상반기 이차전지 수출액이 늘어난 점도 상승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달 이차전지 수출은 7억4000만 달러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지난 4월 6억1800만 달러로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5월 6억 4400만 달러, 6월 7억 4000만 달러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이차전지 수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차전지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이차전지 업계는 제이차 상승 사이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며 “이차전지 업종의 1차 핵심 지표인 ‘가격(리튬, 니켈)’의 바닥을 확인했으며, 양극재 기업들의 분기 평균판매단가(ASP)는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EV) 수요 정체 구간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의 주가·실적 변동은 고객사별 출하 규모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며 “미국 대선의 대외 변수 불확실성에 리스크 관리 여전히 필요하겠으나, 성장의 추세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개인 투자자, 장외채권 23.1兆 순매수

금투협 “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장외채권을 23조원 넘게 순매수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6월 장외채권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투자자는 국채, 기타금융채(여전채),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되며 3조6000억원 규모의 장외채권을 순매수했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23조1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9조2000억원)보다 20.3% 많은 수준이다.

금투협은 “올해 상반기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개인투자자의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37조6000억원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국제 채권 4조5000억원 등 총 5조원어치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251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국내 채권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예상치를 밑돈 미국 물가 및 경제지표, 완화된 우리나라 물가 지표가 강세 재료로 작용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82%로 전월 말 대비 0.270%포인트 내려갔다. 같은 기간 5년물은 3.204%, 10년물은 3.266%로 각 0.298%포인트, 0.31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달 채권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7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고, 발행잔액은 2조7000억원 감소한 2798조원을 기록했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증권, 장기분산투자 문화 확산

‘제로 더 맥스 캠페인’ 시행

미래에셋증권은 장기분산투자 문화 확산을 위한 ‘제로 더 맥스 캠페인’을 시행한다.

8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투자비용ZERO ▲투자불안ZERO ▲투자부담ZERO ▲투자고민ZERO의 네 가지로 구성된 캠페인을 선보인다. 이 캠페인은 국내 주식시장에만 편중된 고객들의 자산을 우량 해외자산과 채권으로 분산투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비용 ZERO’ 캠페인은 연말까지 전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주식과 장내채권 투자 시 발생하는 온라인 매수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간 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신규고객이라면 국내 주식과 미국주식 거래 시 3개월간 무료 수수료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투자불안ZERO’ 캠페인은 개인투자자용 국제 청약 고객을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개인투자자용 국제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축성 국채로,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에서만 청약이 가능하고 매월 20일에 발행된다.

‘투자부담ZERO’ 캠페인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적립식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지원금을 제공한다. 미래에

셋증권 최초 신규 고객 대상이며, 최소 2만원,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적립식 투자는 초보 투자자나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방법으로 투자시기를 나누어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투자방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들의 적립식 투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구루의 투자’, ‘적립식 랭킹’ 등 다양한 투자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투자고민ZERO’ 캠페인은 고객들의 투자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7월 출시를 앞둔 ‘중목요약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해당 기업의 사업을 요약하고 매출 실적 분석 정보를 제공, 투자정보의 시각화 및 추가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들의 투자의사 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S증권, 한우 기초자산 STO 업무협약

“한우농가 자금조달 구조 구축 기여”

LS증권은 지난 3일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STO)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스타키퍼는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플랫폼 ‘뱅크우’의 운영사다.

이번 MOU를 통해 스타키퍼는 기초자산인 한우의 취득, 사육, 매각, 손익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LS증권은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 계좌관리기관 업무, 마케팅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윤지호 LS증권 리테일사업부 대표 전무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한우농가에 필요한 자금조달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윤지호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전무(왼쪽부터)와 안재현 스타키퍼 대표이사(오른쪽)가 LS증권 본사에서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STO) 사업 업무협약(MOU)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S증권

한다”며 “고객 성과와 함께 성장하는 증권사로서 첨단 금융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전용 T커머스 신규도입 필요”

〈데이터홈쇼핑〉

중기중앙회, 502곳 대상 조사
87% ‘도입’, 13% ‘필요하지 않아’
82% “2개 이상 T커머스 필요” 답변
도입 이유 72% ‘비용절감 기대’

중소기업계가 판로 추가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도입을 강력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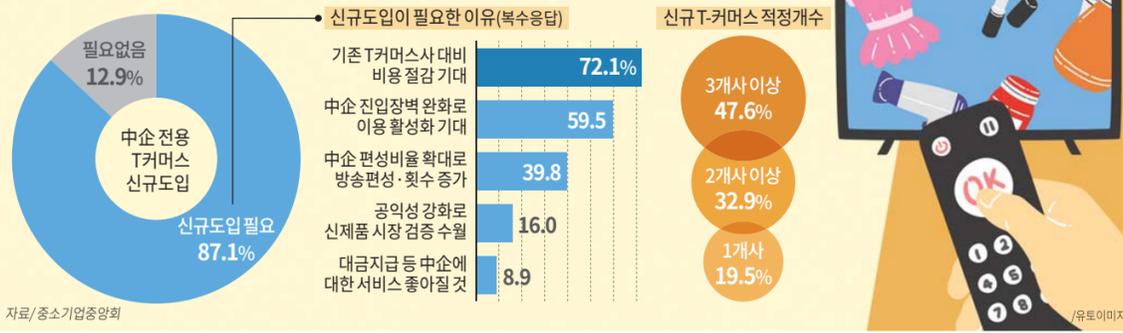
이왕이면 2개 이상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규도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7.1%가 전용 T-커머스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12.9%였다.

T-커머스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기존 T커머스 대비 판매수수료 등 비용 절감 기대’(72.1%)가 가장 큰 가운데 ▲중소기업의 진입장벽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필요성과 이유



완화로 이용 활성화 기대(59.5%) ▲중소기업 편성비율 확대를 원하는 시간대 방송 편성과 횃수 증가 기대(39.8%)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적절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숫자를 묻는 질문에는 ‘3개 이상’이 47.6%로 가장 많은 가운데 ‘2개 이상’도 32.9%에 달했다. 80.5%가 2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1개’는 19.5%였다.

복수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유로는 ▲1개사 도입만으로는 경쟁우도 효과 적음(31.2%) ▲홍보 기회 및 판로 확대(28.7%) ▲이용기업의 비교·판단을 위한 채널 선택권 보장(22%) 등이 꼽혔다.

이런 가운데 T-커머스 신규 도입 시 이용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97.6%의 중소기업이 ‘이용할 의사가 있거나’(43.2%) 추후 검토하겠다(54.4%)’고 답했다. 반면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도입 시 중소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복수응답)은 ▲낮은 판매수수료 등 입점 조건 우대(70.1%) ▲상위 채널번호 배정을 위한 송출수수료 우대 등 정책적 지원(36.1%) ▲입점 상담회 등 MD와의 소통 기회 확대(35.3%) ▲제품 선정 후 방송까지 절차와 시간 단축(26.9%)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T커머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304개사)을 대상으로 조

사한 T-커머스 입점 선택 이유로는 ▲1회 녹화로 방송 부담과 비용이 적음(42.4%) ▲시간 제약이 없어 꾸준한 매출 발생 가능(33.2%) ▲다른 유통 채널에 비해 입점이 쉬움(13.5%) 등의 순이었다.

또 T-커머스 관련 필요한 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판매 수수료 인하’(75.7%), ‘원하는 방송 시간대 편성 및 방송 횃수 확대’(56.6%), ‘신제품이나 인지도 낮은 중소기업의 입점 조건 완화’(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낮은 수수료와 높은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의 T-커머스 신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로 수수료 절감 등 경쟁 유도 효과를 높이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테스트베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표그룹, 로봇 활용 주차솔루션 구축 나서

계열사 에스피엔모빌리티
기술세미나서 ‘엠펬시스템’ 소개

국내 로봇 시장 공략에 나선 삼표그룹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로봇을 활용한 주차 솔루션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삼표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엔모빌리티는 서울 강동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본사에서 12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사가 보유한 독보적 기술인 ‘엠펬시스템(MPSystem)’의 특징을 소개하고, 건축주를 비롯한 설계사·건설사 등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기획했다. 앞서 삼표그룹은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본사 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설계회사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세미나를 개최하며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고 있다.

엠펬시스템은 AGV(무인운반시스템) 방식으로 주차로봇과 딜리버리시스템이 결합된 기술이다. 차량 무게 3t 이



삼표그룹 계열사 에스피엔모빌리티 임직원들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삼표그룹

상까지 운반이 가능하다. 특히 99mm에 불과한 납작한 주차로봇이 건물 내 주차 스토리지에서 전후좌우 모든 방향의 진입 이동은 물론 각 층별 수직으로 층간 이동이 자유로워 좁은 공간까지 촘촘하게 주차할 수 있다.

에스피엔모빌리티는 삼표그룹이 세계적인 로봇주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엠펬시스템’과 손을 잡고 만든 합작법인이다. 주력 제품인 엠펬시스템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로봇을 활용한 로봇주차 시스템 설계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태국, 멕시코 등 해외에서 로봇주차 시스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에스피엔모빌리티 장성진 대표는 “엠펬시스템을 통해 정제된 국내 자동차 주차 기술에 새로운 매력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물류창고, 드론 택시 주차시설(UAM) 등에서도 엠펬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홍보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도로교통공단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소진공에 따르면 두 기관은 ‘3고’ 등 체감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측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전국단위 라디오방송인 TBN한국교통방송을 통해 소진공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인터뷰, 불법 사금융 근절 캠페인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방송할 예정이다.

또한, 소진공의 상권정보데이터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정보데이터 등을 공유하여 상권분석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협업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황미애 상임이사(왼쪽)와 도로교통공단 김환열 방송이사가 지난 5일 대전교통방송 공개홀에서 도로교통공단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장 상인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이나 지원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소진공은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IEC27001:2022)’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IEC27701:2019)’ 국제표준 인증을 동시 취득하고 정보보안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중기유통센터,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실시

총 250개 소상공인 모집·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스마트물류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8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스마트물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 부담 완화와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상품 보관, 재고관리, 포장, 배송 등 물류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풀필먼트

트 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참여가 최종 확정된 소상공인은 지정된 풀필먼트 센터에 자사 상품을 입고하고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풀필먼트 센터에서 상품을 포장, 배송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배송에 필요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고객은 더욱 빠르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올해 ‘스마트물류 지원사업’은 티몬과 큐익스프레스의 협업을 통해 총 250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

하는 소상공인은 큐익스프레스의 통합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티몬의 ‘T프라이ム’ 상품으로 마케팅 지원을 받는다.

또한 스마트물류 전용 온라인기획전, 참여 소상공인 전용 할인쿠폰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유통센터 이태식 대표는 “소상공인 상품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물류 관련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스마트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업무 편의 개선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신제품 ‘루나토-4’ 출시

날개형 헤드보드, 볼륨감 쿠션 조화

에이스침대가 올인원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루나토-4(LUNATO-IV)’를 출시했다.

8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루나토-4는 은은하게 저물어가는 밤하늘의 달빛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제품으로, 이탈리아어로 초승달을 뜻한다.

우아한 곡선의 날개형 헤드보드와 볼륨감 있는 쿠션의 조화로 엘레강스한 침실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신제품은 취미 생활, 업무 등 수면 공간을 넘어 휴식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올인원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디자인했다.

요람처럼 몸을 감싸 안는 형태의 헤드보드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적당한 볼륨감과 비례감을 갖춰 시각적인 중심까지 잡아준다. 헤드보드 등받이는 기대어 쉬기에 최적의 각도로 제작됐으며, 여기에 부드러운 촉감의 원단과 적절한 탄력의 쿠션이 어우러져 완벽한 휴식 환경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경북지역 돼지열병 남하 방지 총력 'GPS 탑재 포획트랩' 900개 배치

서남부 9개 지자체 대상 총력 대응
야생 멧돼지 집중 수색·포획 강화
열화상 드론 활용 10개 감시팀 투입



안동시 남선면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돼지 매몰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가 주 원인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지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대응 대상지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상주, 영천, 군위)과 인접한 경북 서남부 지자체이다. 김천과 구미, 칠곡, 청도, 경산, 경주 등이다. 이들 지역에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 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ASF는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올해 6월15일 경북 영천과 7월2일 경북 안동에 소재한 양돈농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어 7월7일 경북 예천의 양돈농장에서도 양성 확인됐다. 대구 군위군에서는 지난 6월20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발생지역은 물론 경북 서남부 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 "여름 이후 9월 경부터 행동반경이 넓어져 야생멧돼지의 농경지 출몰이 늘어났다"며 "농작물 수확기 이전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 포획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경북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자체 중 하한선에 위치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을 비롯해 서남부쪽에서 인접한 지자체 등 총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야간에 야생멧돼지 체온 감지를 통한 실시간 위치 파악을 실시한다. 또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10개 감시팀을 해당 지역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에서도 야생멧돼지의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를 배치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 깊은 숲속 등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도록 탐지견 8마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환경부는 소속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하는 지자체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미흡하

항을 스스로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렵인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마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방지대책'의 이행현황도 점검한다. 수렵인 및 포획도구 등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는 한편, 바이러스 양성 등 방역 취약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획활동 일시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최남단 방어선에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관찰 지자체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韓美,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협력방안 논의

11일 서울서 4차 환경협력위원회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서울에서 환경 부문 회의를 개최해, 기후변화 대응 및 물 관리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와 외교부와 오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챕터에 근거해, 한국 환경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FTA 환경부 문 이행을 점검한다.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AC)는 환경협력위원회(ECC)는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른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 환경 협력사업 이행을 점검한다. EAC와 ECC는 그간 연계돼 개최됐다. 1차(2013년 2월 워싱턴), 2차(2015년 11월 서울), 3차(2019년 5월 워싱턴) 등이다.

이번 제4차 환경협력위원회(EAC)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켈리 밀튼 미 무역대표부(USTR)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우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서울에서 환경부 문 회의를 개최한다. /뉴시스

리나라의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국무부 및 주한미대사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EAC는 양국 환경 정책에 대해 환경보호수준 강화, 협정에 명시된 다자환경협정 이행, 환경법 집행, 국민의 정책 참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이번 EAC에서 양측은 2019년 제3차 협의회 이후의 양국 간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의 다자협의체 등에서의 협력 기회도 모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양디지털 역량 강화' 국제워크숍 개최

해수부, 8개국 해사분야 전문가 참석

해양수산부가 이달 9~11일 대전에서 '제6회 해양 디지털 역량 강화 국제 워크숍'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해수부는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 선박 등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해양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2018년부터 '해양 디지털 역량 강화 국제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동티모르, 베트남 총 8개국의 해사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별 해양 디지털 기술 개발 동향 및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

해양 모빌리티 기술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해양 디지털 기술 국제 동향 ▲참가 국가별 해양 디지털 기술 적용 사례 ▲차세대 디지털 해도 표준 ▲국제 해양 디지털정보 플랫폼 등이다.

또 한국형 e-내비게이션 운영센터(세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 자율운항 선박 실증센터(울산), 현대중공업 등 주요 연구시설 및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기술 현장 견학도 진행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해양 디지털화를 통한 해상 안전 확보, 해운 효율성 증대, 해운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디지털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中企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도입 확산

근로복지공단, 카카오뱅크와 협약
'돈이 되는 이야기' 콘텐츠 등 홍보

근로복지공단은 8일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 도입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돈이 되는 이야기' 콘텐츠 등 자사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푸른씨앗'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푸른씨앗'을 반영해 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양측은 향후 푸른씨앗 가입자들

위한 금융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은 인터넷은행 중 국내 최대 가입자 수(약 2300만명)를 가진 카카오뱅크와 국내 최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를 가진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에 대한 제도 홍보와 확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함께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퇴직급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속 근로자

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로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2022년 9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412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운영기관인 공단에 납입해야 할 수수료도 4년간 면제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담금의 10%를 3년간 추가 적립해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기대, 훈련교·강사 보수 교육생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교육생 1만7000여명을 7월 10일 ~ 16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참여해

련생을 가르치는 교·강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2024년 7기 모집으로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융합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 내용은 직업능력

개발훈련 관련 법과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다.

특히 교직원분야 보수교육은 직업훈련 교·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해 기본역량과 교수학습 평가역량 등 5대 역량과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수안종합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대금 2504만원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 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

일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수안종합건설 측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 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놀랄 만 큼 다 양 한 콘 텐 츠
볼 수 록 빠 저 드 는 초 고 화 질 지
몰 입 감 높 이 는 사 운 드 까 지

똑같은 품질!

우리 집 통신비 아껴주는

알뜰한 가격!

화질·음질UP | 합리적 가격 | 다양한OTT



TV를 즐기는 새로운 기준!

Hello tv Pro

헬로tv Pro 런칭기념

기본료 할인 EVENT 진행중!

※ 24년 7월 31일까지 가입 완료한 고객에게 해당됩니다.

1:1 실시간 상담톡
바로가기



상담문의 1855-1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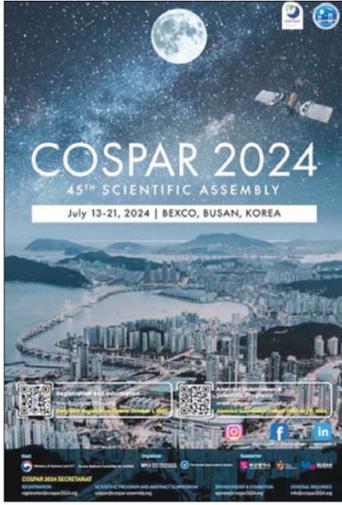
NASA 관계자 등 60개국 우주과학자 부산에 다 모인다

국제우주연구회 학술총회

멕시코서 국내 최초로 개최
3000여명 연구자, 관계자 참여
전 세계 우주연구 발전 등 논의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예정

우주과학 분야의 세계 최대규모 국제학술대회인 '제45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학술총회'가 오는 7월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멕시코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열린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학술총회'는 우주과학 분야 최대 학술행사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우주분야 연구자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을 비롯한 각국 우주개발 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전 세계 우주연구 발전, 국제평화와 협력 정책을 논의한다.



제45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 학술총회 포스터.

이번 총회에서는 60여 개국 3000여명의 우주개발 연구자와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함께하는 우주연구(Team Spirit in Space Research)

h)'를 주제로 ▲개회식 ▲우주기관 연석회의 ▲초청 및 대중강연 ▲전시회 ▲학술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은 오는 15일 벅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인 부산시립무용단의 공연도 진행된다.

초청·대중강연은 14일 오후 진행된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1976년)인 사무엘 팅(Samuel Ting) 교수와 미 항공우주국(NASA) 화성 토양회수 프로그램 책임자인 미나시 와드화(Meenakshi Wadhwa) 박사가 대중강연을 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심재경 박사와 과학 유튜버 궤도가 달 과학 토크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회 기간 전 세계 40여 개 기업·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연구와 이들 기업의 핵심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참여 기업·기관

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보령, 미 항공우주국(NASA), 한국천문연구원(KASI), 나라스페이스, 모하메드빈라시드 우주센터(MBRSC) 등이다.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에는 해운대해수욕장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총회 개최를 축하하는 비행을 30분 정도 펼칠 예정이다.

사전 연습 비행이 7월11일 두 차례 진행되며, 이에 따라 부산 전역에 항공기 비행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서 우주과학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실을 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공공기관 9곳 주요업무 점검

울산시는 8일부터 22일까지 울산시설공단 등 울산시 소관 9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방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주요 업무 현황 청취, 부서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방문 일정을 살펴보면 ▲7월 8일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7월 12일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7월 15일 울산테크노파크 ▲7월 16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7월 19일 울산문화관광재단 ▲7월 22일 울산연구원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울주군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우수'

울산 울주군이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발표한 전국 도농복합시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우수 지역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농어업위는 전국 12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 활력 등 5개 영역의 20개 지표를 평가해 시·군별 지수를 도출했다.

총 129개 지역 중 '농어촌 군' 79곳, '도농복합시' 50곳으로 구분한 뒤 종합 지수를 매겨 각각 상위 20% 지역을 선정했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구미시

통합 주차정보시스템 제공

경북 구미시는 도내 최초로 공영주차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통합 주차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디지털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해 통합 주차관제 센터, 모바일 실시간 주차 정보, 무정차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24시간 무인 원격 제어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차장마다 분산된 주차관리소를 일원화해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경북)=김상복 기자

고성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흠뻑쇼'

경남 고성군은 오는 27일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 야외마당에서 2024년 제2회 고성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하나로 '2024 고성 청소년 흠뻑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3회 중 2회 차 진행 예정인 이번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무더운 여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날리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성군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이번 축제는 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에어 풀장 등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부스가 준비됐다.

/경남(고성)=이도식 기자

전남도, 한우 사료 구입비 125억 지원

농가 위해 예비비 활용 '전국 유일'
3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 대상
인상액 200만원 중 100만원 지원

전남도가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비를 활용, 사료 구입비 125억원을 한시 지원키로 했다. 소규모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과거 한우값 과동기에 소규모 한우농가의 폐업이 빠르게 진행됨에 주목,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3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에 농가당 최대 사료비 인상액 200만원 중 100만원을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전체 한우 사육농가 1만6000여 농가 중 1만2000

여 농가, 비율로는 76%가 해당된다. 사업비는 125억원으로, 도비 25억원, 시·군비 37억5000만원, 자기부담 62억5000만원이다. 마리당 6만6000원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화순축협에서도 한우협회와 18개 축협 조합장, 시·군 등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시 논의된 내용은 사료 구매자금 이자1% 지속 지원,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6만ha)로 사료비 절감, 농·축협 할인 매장을 통한 최고기 소비 촉진, 농가의 자발적 저능력우 도태 등 한우 가격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과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증액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창녕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

창녕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내 10번째, 영남권 최초 지정

창녕군은 창녕군 전역(5만 3051ha)이 영남권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창녕군은 지난 5일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등 9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창녕은 국내 10번째이자 영남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국제조정이사회는 10개국 11곳이 추

가로 지정돼 전 세계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총 136개국 759개가 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3대 지정지역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뛰어난 청정지역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자연에게 얻는 혜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 국내법 외의 추가적인 법적 규제나 행위 제한은 수반되지 않는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은 창녕군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사회·문화·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 용도구역으로 구분해 설정했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집중호우 긴급상황 점검회의

이철우 지사 "인명피해 없도록 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도내 집중 호우에 대비해 8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과도하게 철저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라"며 관련 부서에 재해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5시 기준 상주, 예천, 안동, 의성, 영양, 영덕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문경, 청송, 울진, 북동산지에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도내 여러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긴급 상황 점검 상태와 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피를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10곳 첫 선정

R&D 활동 지원해 경쟁력 향상 도모
2028년까지 총 50개사 선정 계획

김해시가 5대 전략 및 미래기반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10개 사를 첫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중소기업들의 선도적·도전적인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0개사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 전담 부서를 보유한 기업들의 R&D 활동을 집중 지원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개사씩 총 5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분야는 김해 5대 전략산업과 미래기반산업과 연계된 기업이며 지난 3월 시작으로 총 56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과 기술 성숙도 단계에 따라 '도전트랙'과 '성장트랙' 두 트랙으로 구분해 기업당 4000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지원금을 지원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소통의 기회 더하고 비효율 제거 구성원 성장하는 KT&G 만들자”

방경만 KT&G 사장
취임 100일 ‘CEO 메시지’ 발송
“회사 변화·발전 위해 의견 경청”



방경만 KT&G 사장이 취임 100일 CEO 메시지를 발표했다. /KT&G

방경만 KT&G 사장이 소통과 도전, 협업과 나눔을 강조한 취임 100일 CEO 메시지를 8일 발표했다.

이번 메시지는 ‘글로벌 톱 티어 조직문화’를 위한 KT&G의 사칙연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문화 혁신 방안으로 구성됐다.

방 사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의 즐거움과 의미, 성장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며 “구성원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성장하는 KT&G를 만들기 위해 소통의 기회는 더하고(+), 비효율은 제거하며(-), 과감한 도전과 협업으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고(x), 성장의 결실을 공유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CEO 메시지는 전 구성원에게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했다.

또한 국내 제조·영업기관과 인도네시아, 몽골, 대만 등 주요 해외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성원들과 ‘글로벌 톱 티어’ 도약이라는 회사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핵심사업의 강력한 성장 추진을 독려했다.

지난 6월에는 국내외 기업문화 혁신을 이끌어 갈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 ‘글로벌 CA(체인지 에이전트)’ 임명식에 참여하고,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캔미팅을 직접 주관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이번 ‘조직문화 혁신 방안’도 100일 현장경영에서 도출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방경만 KT&G 사장은 “앞으로도 구성원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회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더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몰캉스’를 즐기러 모인 고객들의 모습. /롯데백화점

젊은층 선호 브랜드 유치 누적매출 2000억 찍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 베트남 초단기 1000억원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달 누적 매출 기준 2000억원 고지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혁신 MD’가 첫 번째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40대 이하 인구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베트남 인구구조를 반영해 젊은층 선호 브랜드를 대거 유치한 결과다.

자라·유니클로·폴앤베어 등 입점 피자 포피스 등 20여개 F&B 매장 실내외 광장서 ‘한국식 팝업’ 열어

최상위 매출을 기록중인 자라·유니클로·마시모두피·폴앤베어·망고 등 인기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을 동시에 보유한 점포는 베트남에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유일하다.

또한 9월 그랜드 오픈 이후에도 사두·피자 포피스·텐사우전드 카페 등 로컬 인기 F&B를 비롯해 총 20여개의 신규 매장을 추가 유치해 고객 유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535세대 고객이 매출을 주도하며, 점포 누적 방문객은 8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식 팝업’은 롯데몰에 발길을 끄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 팝업의 성지로 입지한 잠실 롯데월드몰의 DNA

를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에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250명 규모의 실내 아트리움 광장과 500평대의 야외 분수 광장에서 현지 최초의 초대형 팝업을 잇따라 선보였다.

지금까지 사넬뷰티·디올뷰티·레고·코치 등 럭셔리 뷰티에서부터 패션 상품군에 이르기까지 약 30여회의 팝업을 열어 ‘팝업=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라는 공식을 각인시켰다.

팝업에 ‘복합 쇼핑 경험’을 제공한 것이 인기 비결이다. 신상품 출시 등 상품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쇼, 포토존, 기프트 제공 등 체험형 콘텐츠를 팝업에 접목한 것이 발길을 끌었다. 팝업의 누적 방문객은 100만명에 달하며, 팝업 1회당 평균 방문객은 3만명이 넘는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만의 ‘몰링형 공간 특화’가 있다. 축구장 50개 규모의 연면적을 활용해 초대형 매장 조성은 물론 동선을 최대 10m로 넓히고 쇼핑 이외의 대규모 유희 공간을 조성한 것이 큰 몫을 해냈다.

올 여름에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만의 ‘몰캉스(몰+바캉스)’의 진수를 선보인다. 6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베트남의 여름 방학 및 휴가 기간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베트남의 폭염을 피해 역대급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실내는 쇼핑의 최적 온도인 24도를 상시 유지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이탈리아 풍경 옮겨놓은 듯”... 더현대 서울 휴양공간 인기

열흘간 ‘포지타노의 태양’ 10만명 방문
입구에 레몬 모티브 덩굴게이트 설치
중앙광장에 골목시장처럼 상점 배치



더현대 서울 포지타노의 태양 고객. /현대백화점

최근 이탈리아 남부의 세계적 휴양지인 포지타노의 풍경을 옮겨놓은 더현대 서울의 초대형 휴양공간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 내 사운즈포레스트에서 진행 중인 ‘포지타노의 태양’ 행사장을 찾은 고객이 최근 열흘간 10만명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포지타노의 태양은 현대백화점이 해외 대표 휴양지를 콘셉트로 매년 여름 선보일 독자적인 시그니처 테마 행사의 첫 시작으로, 행사 첫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 동안 열린 성과다.

이번 포지타노의 태양이 뜨거운 반응을 얻은 데에는 현대백화점만의 이색적인 공간 연출 역량이 주효했다. 사운즈포레스트 입구에 포지타노의 상징인 레몬을 모티브로 제작한 덩굴 게이트를 설치해 포지타노 마을에 입장하는 듯한 공간감을 살렸고, 중앙광장

에는 북적이는 포지타노 골목 시장을 본떠 이탈리아풍 상점을 줄지어 배치했다.

상점 주변으로 펼쳐져 있는 노란 줄무늬 패턴의 천막과 파라솔, 선베드는 광장을 둘러싼 수직그루의 레몬나무와 조화를 이루며 공간 전체가 포토존이 되도록 연출했다.

상점을 통해 선보인 MD 라인업도 주목받고 있다. ‘폴리아팝’ (와인), ‘젬마디루나’ (와인), ‘아세타이아 델 크리스토’ (프리미엄 발사믹 식초), ‘테소리

도리엔테’ (피푼 바다케어), ‘비비도파’ (젤라토), ‘포르노피노진’ (드라이진) 등 실물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탈리아 현지 브랜드 상품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더현대 서울 포지타노의 태양 마켓의 하루 평균 매출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마켓보다 70% 높다.

더현대 서울 포지타노의 태양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지고 19일부터 무역센터점, 판교점, 천호점, 신촌점, 미아점 등 전국 현대백화점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최빛나 기자

롯데중앙연구소, 각종 균주 연구성과 발표

식물성 발효 음료 개발 일환

롯데중앙연구소가 국내 학회를 통해 식물성 발효 음료 개발을 위한 각종 균주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롯데중앙연구소는 지난 3일부터 5일 개최된 한국식품과학회에 참가해 자체

개발 균주를 적용한 식물성 발효유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식물성 발효유란 우유 등 동물성 원료가 아닌 곡물, 과일 등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발효유로 비건 소비자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다.

롯데중앙연구소는 고품질의 식물성 발효유 개발을 목표로 식물 원료에 롯데

중앙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각종 균주를 적용해 최적의 조합을 찾는 연구를 진행했다.

발표에 따르면 연구진은 발효유에 대한 소비자 기호를 파악해 식물 원료 중에서도 맛과 향이 적합한 ‘보리’와 ‘귀리’를 선정했다. 각 원료에 적합한 효소 처리를 거쳐 발효유 베이스를 제조하고 해당 베이스에 자체 개발한 균주를 적용하며 발효에 가장 적합한 균주를 최종 선정했다. /신원성 기자

CJ제일제당 ‘고메 바삭엿지피자’ 첫 선

슈퍼슈프림·리얼불고기 2종

CJ제일제당은 냉동피자 신제품 ‘고메 바삭엿지피자’ 2종(슈퍼슈프림·리얼불고기)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고메 바삭엿지피자’는 도우 끝까지 치즈를 올린 후 뜨거운 철판에 구워 만든 ‘치즈코팅엿지’로 가장자리까지 바삭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뉴욕, 시카고와 함께 미국 3대 피자로 사각 모양이 상징적인 디트로이트 피자 특유의 바삭한 식감을 원형 피자에 접목시켰다.

이번 신제품은 ‘슈퍼슈프림’과 ‘리얼불고기’ 2종으로 선보였다. ‘슈퍼슈프

림’은 진한 토마토소스에 햄과 각종 야채 토핑으로 기본에 충실한 맛을 구현했다.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고소한 풍미를 더했다. ‘리얼불고기’는 간장 양념으로 달달한 맛을 낸 불고기와 야채 토핑에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와 짭짤한 체다 치즈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맛을 낸다. 순한 맛으로 어린이 간식으로도 제격이다.

에어프라이어에 약 10분만 조리하면 집에서도 쉽게 전문점 수준의 갓 구운 듯 바삭한 식감의 피자를 즐길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고메 바삭엿지피자’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소비자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신원성 기자

에이피알, 유럽·중동 유통망 확대... 'K-뷰티' 위상 강화

스페인 등 계약에 유럽 진출 확대
두바이 유통업체와 UAE 총판 계약
다양한 판로 개척 지속 성장 목표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해외 시장 다각화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에이피알은 최근 서유럽 유통을 진행할 스페인, 북유럽 유통을 진행할 핀란드 등 현지 유통 업체들과 계약을 마무리해 '메디큐브' 유럽 판매를 확대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각 업체들이 여러 국가에서 보유 중인 자체 영업망 내 에이피알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와 뷰티 디바이스 '에이지알'의 판매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스페인 업체의 경우, 본국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통칭 서유럽 지역에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은 과거 대항해 시대의 영향으로 중남미 대륙에 위치한



지난 6월 13~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아세안 방콕 2024'에서 에이피알이 부스를 마련해 전 세계 뷰티 산업 관계자들과 교류했다. /에이피알

스페인어권 지역에도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에이피알은 이번 기회에 서유럽 외 스페인어권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란드 업체는 본국을 비롯해 스웨

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문화권 국가들과 발트 3국의 일원인 에스토니아에 매장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에이피알은 해당 북유럽 국가에서는 '친환경', '인체 친화' 등을 강

조하는 메디큐브 제품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은 해당 국가 소비자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에이피알은 지난 6월에는 아세안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성과를 거뒀다. 기존 진출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이어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브랜드 영향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태국에서 총판 계약 후 약 6개월 만에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최근 두바이 소재 글로벌 유통업체와 아랍에미리트(UAE) 총판 계약을 맺어 중동 지역 또한 정조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피알은 지금까지 전체 매출의 약 40%를 해외에서 기록해 왔다. 지난 2023년 기준 에이피알의 해외 매출액은 2000억원을 넘어선다.

또 올해 1분기 기준, 에이피알의 해외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한 661억원으로 이는 1분기 전체 매출의 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이피알의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매출은 약 2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4% 커졌다. 미국 다음으로 큰 성장세를 보인 해외 지역 매출은 138억원에 이른다. 해당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5% 커진 규모로, 미국, 일본, 홍콩, 중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글로벌 판로 개척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직접 진출, 총판 및 대리점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판로를 넓혀 K뷰티테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K뷰티의 위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에이피알은 상장 당시에도 장기적인 글로벌 성장 우상향을 위해 추가 해외 진출 및 판로 개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J프레시웨이, 샐러드 식자재 매출 32% ↑

빨라진 여름에 다이어트족 늘어
샐러리아에 소스 등 180여개 공급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에 식단 관리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CJ프레시웨이의 샐러드 및 샌드위치 전문점 대상 식자재 매출도 덩달아 뛰었다.

CJ프레시웨이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가운데, 올해 '입하(5월5일)'를 지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8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전국 샐러드 및 샌드위치 매장 수는 280여 곳에 달한다. CJ프레시웨이는 늘어나는 주문량을 대비해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과 신선도 유지에 힘쓰고 있다. 상품 전문 MD 조직이 유럽 채소, 토핑용 축육 등 다양한 식자재를 소싱하는 것은 물론 샐러드, 샌드위치의 주재료인 훈제 연어(칠레산),



CJ프레시웨이 외식 고객사 '샐러리아' 메뉴. /CJ프레시웨이

새우(페루산) 등은 선제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무소에서 직수입한다.

체계적인 콜드체인 시스템과 전국 물류망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 배송도 책임진다. 상온·냉장·냉동 상품별 입고를 거쳐 검품 및 검수, 자동

온도 조정 기반 재고 관리, 배송 차량 온도 점검, 실시간 배송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한다. 7개의 광역 물류센터, 19개의 지역 물류센터를 갖춰 전국 단위 배송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성수기를 맞아 전문점 매출 향상을 위한 신메뉴 개발도 지원한다. CJ프레시웨이 셰프, R&D 전문가 등이 외식 트렌드, 조리 편의성을 고려한 레시피를 만들고, 자체 제조 인프라를 통해 원팩 제품도 생산한다.

전국 가맹점 60여 곳을 운영하는 샐러드 프랜차이즈 '샐러리아'는 지난해 CJ프레시웨이와 식자재 계약을 맺었다. CJ프레시웨이는 야채, 축육, 수산물, 소스 등 식자재 180여 가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샐러리아' 맞춤형 샐러드 야채 믹스 상품 개발도 논의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경, 슬림 파우치 타입 '옷걸이형 제습제'

흡백신, 한번에 400g 습기 제거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습도가 높은 여름과 장마철, 집안을 쾌적하게 관리해 주는 제품을 선보인다.

애경산업은 홈 위생케어 브랜드 '홈백신'에서 '옷걸이형 제습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홈백신 '옷걸이형 제습제'는 습기 제거가 필요한 공간에 간편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옷걸이 형태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좁은 옷장, 물건이 많은 다용도실 등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홈백신 '옷걸이형 제습제'는 넓은 면적의 흡습지와 비드 유형의 고순도 염화칼슘을 사용해 공기 중 수분과 맞닿는 면적을 넓힘으로써 효과적인 제습 기능을 한다는 것이 애경산업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신제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400g의



홈백신 '옷걸이형 제습제' /애경산업

대용량으로 제작됐다. 또 투명 디자인을 통해 흡습량과 교체 주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홈백신 '옷걸이형 제습제'는 흡습한 물을 간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제품 표면에 절취선이 표시됐고, 플라스틱 옷걸이 부분은 쉽게 분리돼 분리배출 편의성까지 갖췄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C녹십자엠에스

올해 전문무역상사 지정

GC녹십자엠에스가 헬스케어 산업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GC녹십자엠에스는 지난 5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문무역상사 제도'에서 '2024년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통해 매년 수출 실적과 중견·중소기업 제품 수출 비중을 기준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한다. 올해는 167개 기업이 신규 지정된 가운데, GC녹십자엠에스는 의료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청하 기자

오뚜기 '순후추·카레' 활용한 만두 선풍

순후추 교자·카레 군만두 2종 출시

종합식품기업 오뚜기가 대표 제품인 '순후추'와 '오뚜기 카레'를 활용한 냉동만두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순후추 교자'와 '카레 군만두' 2종으로, '순후추' 출시 50주년과 '오뚜기 카레' 출시 55주년을 기념해 각 제품의 IP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순후추 교자'는 만두소에 순후추가 콕콕 박혀 있는 교자 형태의 만두로, 알싸하고 매콤한 순후추 풍미를 즐길 수 있다. 국내산 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져 육즙과 채즙의 조화를 맞볼

수 있으며,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어, 찜기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조리 가능하다.

함께 출시한 삼각형 모양의 '카레 군만두'는 만두피에 쌀가루와 강황을 첨가해 바삭한 식감과 노란 빛깔을 살렸다. 만두소에는 고기와 양파를 듬뿍 넣었으며, '오뚜기 카레 약간 매운맛'을 활용해 익숙한 카레 풍미를 구현했다. 18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약 8분간 데우면 노릇하고 바삭한 군만두가 완성된다.

기존 '순후추'와 '오뚜기 카레'의 디자인을 적용한 패키지도 눈에 띈다. /신원선 기자

동화약품, 입술염 치료제 '큐립연고' 출시

알란토인 등 5가지 복합성분 함유

동화약품이 갈라진 입술, 짓무른 입술 등에 효과적인 일반의약품을 선보인다. 동화약품은 국내 유일 연고 제형 입술염 치료제 '큐립연고'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큐립연고'는 에녹솔론, 알란토인, 피리독신염산염,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염화세틸피리디늄수화물 등 5가지 복합성분을 함유해 입술염에 대한 효능

을 갖췄다. 특히 입술 갈라짐, 입술 짓무름, 구순염, 구각염 등 유병 기간이 길고 재발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하다는 것이 동화약품 측의 설명이다. '큐립연고'는 반투명 연고 제형으로, 립밤처럼 수시로 사용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상 1일 수회 적당량을 질한 부위에 바르면 된다.

또 '큐립연고'에는 사선 용기와 프레쉬 로즈향이 적용돼 위생적이면서도 산뜻한 사용감을 제공한다는 것이 동화약품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큐립연고 /동화약품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루시퍼 신드롬



진성오 박사
심리학자

스텐퍼드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가 수행한 일종의 심리학 실험에서 근원한 용어로, 학교 지하에 교도소를 만들어놓고 지원자를 뽑아 죄수와 교도관 역할의 두 집단을 만들고 2주간 이들이 어떻게 살아아가는가를 관찰 연구한 실험을 기록한 책의 이름이다.

단순히 실험이며 역할 놀이에 가까웠던 실험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험자들은 자신의 역할과 행동을 일치시켜가기 시작하며 실제 실험을 넘어서서 성적 학대 수준의 행동까지 이어지게 된다.

결국 2주를 예정한 실험은 참가한 피험자들의 우울증, 정신적 고통 등으로 6일 만에 종료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는 여러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인간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루시퍼'와 같은 악마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루시퍼는 보통 '악마의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루시퍼라는 말은 원래 셋별인 금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여성적인 요소의 비하가 일종의 악마의 왕으로서 위치까지 올려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짐바르도의 실험에서 관찰한 인간의 악한 변화를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으로, 혹은 단순히 나보다 힘센 사람이 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악한지의 판단보다 먼저 행동을 실천하는 무기력한 존재다.

이런 '루시퍼 효과'는 사실 짐바르도의 실험 이전에 무수한 인간 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한나 아렌트가 기술했던 '악의 평범성'에도 나온다. 그녀는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악마의 왕인 루시퍼가 특별히 뿔을 달고 얼굴이 빨갛고 꼬리가 달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옆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프로모 레비는 자신의 수용소 생존 40년 이후 당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인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가라 앉은 자 구조된 자'라는 책을 저술한다.

그 책에서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피해자인 사람들의 영역 안에서도 더욱 가해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에 대해, 그리고 가해자들이 일상성과 평범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한다. 이후 1년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고통스러운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남은 생존자가 삶이라는 아우슈비츠에서는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풀려났던 것이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마사회, 서울대어린이병원에 헌혈증·기부금 전달

한국마사회는 지난 5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의 헌혈증서와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부터)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최은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한국거래소, 다문화가족 의료지원사업 3억 후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강원 삼척시 소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의료지원사업 후원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앙대병원과 협력해 전국 8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구성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초청) 건강검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DB손해보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서

DB손해보험은 지난 6일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한 '러브하우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DB손해보험 임직원과 DB프로미 농구단 등으로 이뤄진 80여명의 봉사단은 사단법인 '함께웃는세상'과 함께 원주시내 홀몸노인 및 국가유공자의 거주지를 찾아 도배지와 장판 교환, 생활개선 물품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DB손해보험



중앙그룹, '양중크루' 2기 본격 활동

중앙그룹은 대학생 크리에이터 '양중크루' 2기가 지난 4일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 파크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양중크루는 2달 간 ▲실무진 특강 ▲주요 사업장 견학 ▲컨퍼런스 참가 ▲임직원 커피챗(멘토링) ▲취향 클럽(동아리)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중앙그룹 대표 크리에이터로 활약할 예정이다. /중앙그룹

동아제약

박카스배 전국골프대회 개최

동아제약이 대한민국 골프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을 육성하는 데 앞장선다.

동아제약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제주 골프존카운티 오라CC에서 '2024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대한골프협회 선수등록규정에 의해 2024년 현재 선수등록을 한 국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17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동아제약은 골프 꿈나무들이 이번 대회를 발판삼아 더 넓은 세계에서 활약하는 프로선수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se236@

현대차그룹, 소방관 회복지원버스 캠페인 영상 공개

응원편지 형식... 소방관들 참여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보통의 영웅들'을 응원한다.

현대차그룹은 현장 소방관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한 소방관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 이야기를 그린 캠페인 영상인 '사육, 사철'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대형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빠른 재충전을 돕기 위해 수소 기술이 탑재된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를 기증하는 프로젝트로 현대차그룹과 소방청,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영상은 선배 소방관이 후배 소방관에게 전하는 응원 편지 형식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휴식 또한 중요함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소방관들은 불길과 연기



현대차그룹의 현장 소방관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를 사용하게 될 제주소방본부 소방관들.

가 가득한 대형 화재 현장에서 2~30분 간격 교대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선다. 소방관들은 교대 후 휴식 시 배기가스 없이 순수한 물 만을 배출하고 소음과 진동이 없는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의 내부에서 다음 교대 투입을 위해 재충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상 제작에는 인천, 제주, 강원 소방본부의 소방관들이 직접 참여했다. 영상의 제목인 '사육, 사철'의 목소리 더빙과 출동 장면에는 인천

소방본부 최방균 소방경과 김민현 소방장이 출연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올바른 움직임"이라는 사회적 책임 메시지 아래 다양한 영역에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인류의 삶을 위해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진정성을 담고 기술의 선한 활용을 보여주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협력사 초청의 날' 행사

김인규 "100년 기업으로서 협력사 동반성장 최선"

(하이트진로 대표)

SGC솔루션 등 협력사 100곳 초청

하이트진로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협력사초청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총 100개 협력사를 초청해 10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일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초청의 날 행사를 가졌다. 동원시스템즈, SGC솔루션, 수남기업 등 하이트진로의 협력사 100곳이 자리를 함께했다.

하이트진로는 '함께한100년, 그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초청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리고 함께할 100년' 슬로건을 공개, 협력사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함께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협력사별 기념현판을 제작,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이래 협력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및 화합

을 위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선포,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꾸준히 소통해 오고 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상황 속에서도 동반자가 돼 준 협력사가 곁에 있어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다"며 "하이트진로는 100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협력사의 지속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올해 '글로벌 비전 2030' 선포,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 100주년에디션' 출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 등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신현선 기자 tree6834@

예탁결제원

외화증권 투자지원 30주년

이순호 사장 "외화증권 접근성 제고"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사진)을 비롯해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엄주성 키움증권 사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정은영 HSBC코리아 행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예탁원을 통한 외화증권 의무예탁제도는 1994년 7월 정부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소유한 외화증권과 투자자의 외화증권은 예탁원이 지정한 외국 보관기관 예탁원 명의 계좌에 보관되고 있다. 보관금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1250억 달러이며 최근 1년간 결제금액은 약 462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순호 사장은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는 '94년도 당시 미화 약 18만 달러에서 현재 41개 외화증권 시장, 1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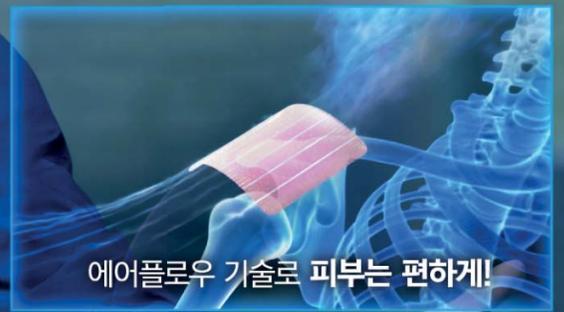
◆세아베스틸 ◇신규 선임 △대표이사 서한석 △경영총괄 홍상범 △군산공장장 홍성원

부음

▲김복성 씨 별세, 김진영(SNT다이나믹스 전무이사)씨 부친상 = 8일,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10일. ☎055-372-4447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통증엔 케펜텍으로 Tech 하세요!



케펜텍 Cool

케펜텍 HOT

케펜텍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참조 및 본사 마케팅부(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헬스사이언스(주) Tel. 수신자부담 080-549-0002)로 문의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 2021-1584-004200

서울시, 데이터 기반 행정 가속화 63억 들여 디지털 매력도시 구현

3대 전략, 9개 추진 과제 수립 행정 효율성↑·양질 서비스 제공 21개 시정 핵심사업 종합 컨설팅

서울시가 사회 현안 해결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을 추진, 시 핵심 사업의 성과를 창출해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3억 1900만원을 투입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으로 디지털 매력도시 구현에 나선다.

시는 '선제적·종합적 분석 지원으로 과학 행정 가속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의 경제 가치 창출 지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토대 조성'이라는 3대 전략, 9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데이터 활용이 미흡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21개 시정 핵심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해 종합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과제 발굴부터 활용, 정책 시행 전후 비교 분석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통해 시정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목표다.

민선 8기 시정 핵심사업 중 시급성·중요성·파급효과가 높은 21개 과제를 선정해 찾아가는 분석 컨설팅을 추진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대상 사업은 ▲상암 재창조 구상 종합계획 수립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서울을 촘촘히 엮는 도시철도망 조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적기 건립 및 현대화 추진을 포함 총 21개다.

시는 상암 일대 교통 접근성을 분석하고 거점 이용 현황을 파악해 신교통 수단 등 경로를 설정, 저이용 시설을 활성화하고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리버버스 이용객의 주요 동선과 이용 목적, 주변 상권 이용 패턴 변화를 도출해 정책 추진 효과성을 살피기로 했다. 리버버스 연

계 노선을 신설하는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강 주변 상권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권역별 도시철도 소외 지역 및 예상 교통 수요 파악으로 신규 노선과 신설역 위치를 제안할 방침이다. 데이터 분석 결과가 교통 효율성, 접근성 개선 등 도시 철도 네트워크 확장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부지별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조건을 비교하고 SNS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과 보상 기대 수준을 측정,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 때 설득을 위한 소통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 등 다양한 검색 서비스도 선보인다.

일상언어로 묻고 답하는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와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자사고' 이대부고, 일반고 전환 신청

학령인구 감소에 지위 포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하 이대부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이대부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관내 자사고 중 11번째 전환 사례가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30일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대부고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반고 전환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 고교학점제 운영 환경 구축,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 학교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난, 재정 부담 등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청문 및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이대부고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관내 자사고 중 열한 번째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사례가 된다.

앞서 2012년 동양고를 시작으로, ▲용문고(2013) ▲미림여고·우신고(2016) ▲대성고(2019) ▲경문고(2020) ▲동성고·송문고·한가람고(2022) ▲장훈고(2023)가 일반고로 전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대부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학교·학부모·교육청이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 시 두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환기' 복합교육과정에서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2년간 총 25억(교육부 15억, 교육청 10억)을 지원받아 기존 재학생의 등록금 감면,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존치가 결정됐음에도 일반고 전환을 통해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학교 선택을 존중한다"라며 "앞으로도 '수평적이고 다양한 고교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교사 90% "정부 대책에도 교권 변화 없어"

故서이초 교사 1주기 여론조사 교사 98.7% "수사 결과 신뢰 안 해"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상황 경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년을 앞두고 서울 교사 10명 중 9명 가량이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교권 관련 대책에도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 10명 중 7명은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울교사노조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시민과 교사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변화에 대해 77.4%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매우 많이 나빠졌다'(4.3%)나 '좀 더 나빠졌다'(6.9%) 등 오히려 나빠졌다 응답도 11.2%에 달했다. 교사 10명 중 9명은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반면 나아졌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는 담임 교사가 교육활동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다. 일각에서는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 폭언 등 괴롭힘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정황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 시민 83.6%와 교사 98.7%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경찰의 '범죄혐의없음' 수사 종결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덕적 면죄부까지 쥐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우려했다.

서울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78.6%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중 '자주 경험했다'는 답변도 16.0%에 달했다.

교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일부 학부모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야 의미가.

박 위원장은 "서울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와의 관계"라며 "교사들의 56.2%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게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응답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라며 "교사 직무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

광명시, 국도비 150억 확보... '역대 최대'

기후위기 대응형 분야서 선정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구현 계획

광명시는 2024년 상반기에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국비 116억 9천만원, 도비 33억 1천만원 등 총 150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0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것과 비교해 49억 원(48.5%) 증가한 수치다. 선정 건수도 6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51건 대비 1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국·도비를 확보한 공모사업 중 5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8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8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12억원) ▲공공임대주택 매입 지원사업(7억원) 등이다. 모두 시민에게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광명시가 선정된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형 분야로 시는 3년간 총사업비 160억 원(국비 80억 원, 시비 80억 원)을 투자해 '광명형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불투명한 세수 여건으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7월 9일 (화)
음력: 6월 4일

수도권 날씨
23~2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9 | 해짐 / 19:5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프랑스 총선, 좌파연합 '깜짝' 1위...1차 1위 RN은 3위로
▲일 자위대, 필리핀 파병 가능해진다...남중국해 中 포위 강화 /사진 뉴스스

▲전쟁 9개월에 지친 이스라엘인들... "휴전·총선하라" 반정부 시위
▲"관광객 꺼져" 식당서 물벼락... '관광 반대' 시위에 물총 꺼낸 바르셀로나



▲美민주당 의원 다수, 차기 후보로 해리스 지목 /사진 뉴스스
▲중국어 두 번째로 큰 담수호 붕괴... 6000여명 대피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경영 물러난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04



Life

방경만 사장
“구성원 성장하는
KT&G 만들자”
니



저탄소 생산, 환경정화... 친환경 철강사 향해 ESG ‘담금질’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현대제철

탄소중립 모색, 친환경 역량 매진
新 전기로 내세워 기술경쟁력 쌓아
하이큐브기술로 고성능 제품 생산

임직원, 멸종 위기종 보전 프로젝트
청소년들에 생물다양성 의미 알려

유니버설 디자인 ‘누구나 벤치’ 기부
장애아동에 맞춤형 보조기기 전달도

현대제철은 경기 침체로 인한 불안정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성장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라는 기업 정체성을 확고히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지속가능성을 대변하는 당면 과제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3년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의한 ESG 경영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았다. 특히 환경(E) 부문 역량이 집중하며 탄소 중립을 향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취임한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현대제철 임직원들에게 친환경 역량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서 사장은 지난 6월 현대제철 71주년을 맞아 기념사에서 ESG 경영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가치에 발맞춰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 구조 효율화를 도모했으며, 이 밖에도 ESG 분야의 역량강화를 통해 세계철강협회 ‘WSA 지속가능 챔피언’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현대제철은 ESG 경영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적극 펼치고 있다.

◆ 이산화탄소 잡자... ‘하이큐브’ 기술로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

세계적으로 탄소장벽이 높아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탈탄소’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의 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철강 산업은 2050년 ‘온실가스 순 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가 가장 어려운 산업군 중 하나다.

현대제철은 ‘전기로’를 핵심으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며 공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로 중심의 기존 생산체제를 수소환원 신(新) 전기로 프로세스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전기로는 공정에서 철스크랩(고철)이 많이 사용되는 탓에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현대제철은 기능적 측면에서 발전된 전기로를 내세워 기술경쟁력을 쌓아오고 있다. 철 원료를 녹이는 것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분을 추가하는 기능까지 모두 가능한 ‘하이큐브 기술’을 통해 고성능 제품을 생산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하이큐브 기술을 상용화하고 현재 고로에서 생산되는 고급 판재류까지 전기로에서 생산하는 공정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하이큐브는 전기로에 철스크랩과 고로의 탄소 중립 용선, 수소 환원 직접환원철 등을 혼합 사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최고급 판재를 생산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고로와 전기로 설비를 모두 갖춘 사업 구조를 적극 활용해 빠른 시간 내 효율적 저탄소 생산 체제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 생태계 보호에도 힘써... 생물다양성 보존 앞장

생존을 위협받는 생물들을 보호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생태계 보호가 곧 기업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생태계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취지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우 가족으로 구성된 해피프리즘 가족봉사단은 지난 6월 송산면 당산 생태공원일원에서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은 지역민 등이 함께 참여해 ‘멸종 위기종 보전 프로젝트’로 지역 내 멸종 위기종을 식별하고 보전 활동을 펼친다. 특히 금개구리의 서식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 인근 배수로에 생태 사다리를 설치하고 환경 정화에 집중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활동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당산 생태공원 생태계 현황과 멸종 위기종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당진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도 시민과학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 생태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며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세밀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생물다양성 보전은 전 지구적 이슈이지만 그 실천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NGO와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 등 사업장 소재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철’ 활용해 장애인 안전·편의 높여

현대제철은 기부 활동도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으로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1 현대제철 서강현 사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5일 당진제철소 기술연구소 1층 로비에서 진행된 ‘탄출출 미팅’에서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2 현대제철이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여 만든 자동차 강판 시제품.
3 현대제철은 지난 4월 푸르메재단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누구나 벤치’ 사업을 진행했다.
4 현대제철은 ‘나도 시민과학자’ 프로젝트를 통해 당진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제철

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 이해와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회사는 지난 4월 17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누구나 벤치’를 기부했다. 누구나 벤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제작됐다.

올해 서울시 내의 주요 공원, 대학교, 복지시설 등 시민 이용공간에 30여 개의 누구나 벤치를 설치하고, 이후 수도권 및 현대제철 사업장 인근지역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1억원의 기금을 모아 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전달했다. 발달장애 아동에

게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기 위한 취지다. 중증의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유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단계에 맞는 아동용 보조기기가 필요하나 맞춤형 특수 보조기기 특성상 고가인 경우가 많아 장애아동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대제철의 후원으로 중증 발달장애 아동 가정에 아동보조기를 선물해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관계자는 “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소재”라며 “철을 활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회 공헌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하성, 2경기 연속 안타... 팀은 타선 침묵으로 패배 /사진 뉴시스
▲ 축협 “홍명보 감독, 원 팀 만드는데 탁월... 삼고초려 했다”

▲ 프로축구 K리그2 부산 박진섭 감독, 성적 부진으로 사임
▲ ‘인사이드 아웃2’, 4주 연속 주말 1위... 691만 돌파



▲ 박종업 전남탁구협회 전무이사, 파리 올림픽 탁구 심판 선정
▲ 탁구 혼합복식 임종훈-신유빈, 올림픽 2번 시드 놓쳤다 /사진 뉴시스